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118호 【루계 제25627호】 주체106(2017)년 4월 28일 (금요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혁명사적사업에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사업을 적극 도와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신념을 간직하고 수동구 수동동 27인민반 최철민, 정해경부부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였으며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도 앞장섰다.

교육위원회 교육정보교류소 연구사 송은하는 수십년세월 하루와 같이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침으로써 충정과 애국의 가풍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다.

혁명전사들에게 값높은 영생의 삶을 안겨주신 백두산전술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중구역 시분동 8인민반 김송희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리는데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아침콤퓨터합영회사 부원 김주혁도 날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성의껏 지원하는 훌륭한 소행을 발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업적을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마음안고 김일성김정일기금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윤철, 인민경제대학 산하단위 부원 리은경, 조선태양총회사 산하단위 부원 정명혁, 평천구역인민보안부 인민보안원 정예혁, 2.8직동청년탄광 로동자 김용실은 창성군과 동창군의 혁명사적지들에 많은 건설자재들을 보내주었다.

평성시경로동직장관리위원회 로동자 김순찬, 평성시 두무2동 51인민반 강순화는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갈 열의밑에 정성껏 마련한 물자들을 안고 백송혁명사적관개건공사장으로 달려나가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 해당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사적물들을 영구보존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끝없는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칠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소집함에 대하여

학생소년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며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새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혁명적소년조직건설과 소년운동의 빛나는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를 주체106(2017)년 6월초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소집할것이다.

조선소년단 제8차대회는 우리 혁명과 주체적소년운동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소년단을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소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모든 소년단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 청년동맹의 참다운 교대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주체106(2017)년 4월 27일

《조선 사상 최대규모의 열병식 진행》, 《김정은최고령도자 경축행사에 참석》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5돐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성대히 거행된 소식을 15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프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이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을 경축하여 열병식을 진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을 위한 혁명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의 탄생일경축행사에 참석하시였다.

열병부대들과 무장장비들이 수도중심에 있는 김일성광장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대규모열병식에서는 비행기편대가 평양상공에 《105》라는 수자를 형상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열병식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보도하였으며 베네수엘라 텔레쑤르TV방송은 김정은위원장께서는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시여 외국기자들의 초점을 모으시였다고 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은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에 즈음하여 조선에서 대규모의 열병식 및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김일성광장에 도착하시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고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열병대오와 평양시민들은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행사에서 특징적인것은 김정은최고령도자를 앞장에서 받드는 조선군대의 지위가 더욱 뚜렷이 과시된것이다.

조선은 열병식을 통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군력과 선군정치를 계속 강화해나갈 의지를 시위하였다.

열병식은 조선지도부의 립장을 또다시 천명한 계기로 된다. 또한 미국이 조금만 건드려도 군대와 함께 전민이 떨쳐일어나 단호히 맞설 결사의 각오를 보여준것으로도 된다.

에스빠냐신문들인 《엘 문도》, 《엘 빠이스》는 북조선이 열병식에서 새로운 군사적위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공개로 미국에 경고하였다, 열병식은 조미사이의 군사적충돌위험이 극도에 달한 속에서 진행되였다, 열병식참가자들은 자기 병도자앞을 지나면서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고 지적하였다.

스위스신문 《노이에 쥬리히 짜이퉁》은 미국의 수리아공격에 북조선은 열병식으로 대응하였다, 세계는 북조선지도부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핵시험 또는 미싸일발사로 힘을 과시하고 미국에 도전할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북조선은 보다 절묘한 방법으로 위력을 시위하였다, 북조선지도부는 열병식을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어떤 군사적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계기로 리용하였다고 평하였다.

일본의 지지통신도 열병식을 통해 북조선은 핵과 미싸일개발을 포기할것을 요구하는 미국에 굴하지 않을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전하였다.

로씨야의 신문 《쁘쏘블스까야 쁘라우다》, 로씨야 24TV방송, 《1통로》TV방송, 인터네트통신 에르베까, 웰남의 신문 《데 저이 바 웰남》, 인터네트통신들인 전 씨, 뚜오이 쩨, 몽골의 몬짜메통신, TV방송, 캄보쟈의 TV방송들, 일본의 교도통신, 《도꾜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NHK방송, 네팔의 신문 《라이징 네팔》, 써거르마라TV방송, 싱가포르의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린합조보》, 《투데이》, TV《아시아소식통로》, 말레이시아신문 《우뚜산 말레이시아》,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페루신문 《알 디아르》, 에짚트신문들인 《알 아흐람》, 《알 워프드》, 《알 미쓰리 알 아욤》, 《알 아욤 알 싸비아》, 페루신문 《엘 꼬메르씨오》, 영국의 로이터통신, 프랑스의 AFP통신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백두산제스프조선친선협회 인터네트홈페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헌지지도소식들》도 《조선에서 김일성주석 탄생 105돐 경축》, 《새로운 형의 미싸일들로 세계를 놀래운 조선》, 《조선 사상 최대규모의 열병식 진행》, 《북조선: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 전면대결할 준비가 되여있다》, 《북조선 위력 시위》 등의 제목들로 우와 같은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을 더 높이 울리자

최첨단돌파전에로 추동하는 힘있는 당조직정치사업

국가과학원 당위원회에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니고있는 성스러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국가과학원 당위원회가 비상한 전투력을 발휘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최첨단돌파전에로 추동하는 당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가 철저히 선 산 당조직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기본혁명과업수행에서 떨쳐져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밑에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국가과학원적인 중심전투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단위별, 일군별분담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당위원회는 최첨단돌파전에서 높은 심적이 이룩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생활개선에 절실히 필요한 어느 한 설비를 우리 식으로 만들어낼데 대한 전투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도 당위원회에서는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김윤기, 김성찬동무를 비롯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설비제작과정을 단순히 과학연구사업과정이 아니라 당중앙결사옹위신념의 드팀없는 발현과정으로 전환시켜나갔다. 먼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해당 설비제작과 관련하여 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절세위인의 무한대한 사랑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주었다.

불리한 조건들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설비제작을 빠른 기간에 해제낄 방안을 세웠으며 능력있는 당, 행정일군들을 돌팔는 현지에 파견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추진정형을 매일 장상적으로 총화하는 한편 걸린 문제해결에 솔선 발벗고나섰다. 당위원장은 집적회로연구소와 자연에네르기연구소를 비롯하여 해당 설비제작을 맡은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심금을 울리는 화선식정치사업과 통이 큰 후방사업으로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키였다.

최첨단돌파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지혜로 해당한 설비를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훌륭히 만들어내게 되였다. 지난 2월초 그 설비를 몸소 보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면서 국가과학원에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그리고 설비제작을 위한 영예로운 과업을 또다시 맡겨주시였다.

당위원회에서는 국가과학원안의 단위들을 망라하여 설비제작을 위한 강력한 력량을 편성한것과 함께 당정책관철의 기본전투단위인 초급당들과 당세포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최첨단돌파전의 승전포성이 계속 힘차게 울려퍼지도록 하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생산단위들의 현대화와 생산활성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도 과학자, 기술자들이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을 남김없이 펼치도록 당적지도를 강화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삼천메기공장에 10여개 단위의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 100여명을 파견하고 그들을 적극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잘 따라세웠다. 그리하여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많은 현대적인 설비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연구제작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2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리게 되였다.

조직부, 선전선동부를 비롯한 당위원회 각 부서 일군들은 철두철미 과학연구사업을 중심에 놓고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심속있게 진행하고있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소행들을 제때에 장악하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일반화하여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올해의 장엄한 행군길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열풍이 더욱 드세게 일어번지도록 하고있다.

그에 따라 정보과학기술연구소, 기계공학연구소, 평양화초연구소, 흑색광업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안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지난 1.4분기에만도 내놓고 자랑할만한 과학연구성과들이 이룩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정수

의료설비의 현대화에 적극 기여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양시안의 20여개 보건기관들에 있는 렌트겐설비들의 현대화, 국산화를 실현하는에 크게 기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의료설비들과 기재들을 부단히 갱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시안의 보건기관들의 렌트겐설비들을 일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여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연구집단과 창조적지혜를 합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때부터 김책공업종합대학 동력공학부에서는 실력있는 연구사들을 파견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갔다.

정민석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문제해결의 열쇠는 자력자강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안고 분현조사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이들은 우리 힘, 우리 기술로 기어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할 신심에 넘쳐 무준히 탐구의 열정을 기울여가며 연구사업을 진척시켜나갔다. 이 과정에 기발한 착상을 무르익혀 값비싼 무분품을 대신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으며 원래의 설비를 원상복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설비로 손색없이 제작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기존상식으로써는 엄두도 낼수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 카메라에 의한 렌트겐화상처리를 손색없이 실현하였다.

콤퓨터와 결합시킨 이 화상처리를 위해 수자식조종반도 새롭게 제작하고 필요한 프로그람도 개발하면서 화상자료의 정보화를 완성하였다.

한 단위에서 성공시킨 경험을 살려 이들은 총정의 70일전투에 이어 200일전투 전기간 20여개의 보건기관들을 찾아가 해당 단위 일군들과 힘을 합쳐 렌트겐설비들을 모두 일신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렌트겐설계를 과학적으로 하고 설비들을 원격조종할수 있게 하여 설비를 자주 다루는 의사들을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였을뿐아니라 수자식조종반으로 렌트겐설비의 동작상태를 실시간적으로 감시 및 조종할수 있게 하였다.

이들의 탐구와 열정이 비껀 렌트겐설비들에 대한 보건일군들의 호평이 대단하다.

이 연구성과에는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라는것을 철리로 세기고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김책공업종합대학 연구사들의 땀방울이 슴배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 많은 보건기관들에 도입하기 위해 탐구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공로혁

언제콩크리트치기 90%계선 돌파

고산군민발전소건설장에서

고산군민발전소건설장의 모습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계속 변모되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발전소언제콩크리트치기 90%계선을 돌파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남대천에 착공의 첫삽을 박은 후 찬물속에서 겹사전을 벌려 1차가물막이를 진행하고 언제건설의 돌파구를 연 이들은 2차가물막이까지 끝내였다. 그리하여 언제 전구간에서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할수 있게 되였다.

발전기실바닥콩크리트치기가 끝나고 취수구에 수문을 설치하는 작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가물막이를 하였던 곳에서도 언제를 건설하기 위한 전투가 분초를 다투며 진행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고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맞추며 다양한 동력자원을 개발하여 새로운 발전능력을 대대적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언제콩크리트치기를 빨리 끝내는것을 발전소건설에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여기에 조직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각 려단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향한 총돌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종전 가물막이구간에서의 언제건설을 맡은 여러 려단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만난을 물리치면서 폭풍처 내달리고있다.

함경북도려단의 전투장에서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고산땅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일 불타는 열의밑에 만리마의 기상을 떨치면서 여러 대상건설을 동시에 완강히 내밀고있다. 이들은 발전소건설초기에 맡은 발전기실의 바닥콩크리트치기를 완성한데 이어 언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함경남도와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언제콩크리트치기를 절반이상 수행한 기세로 전투를 더욱 맹렬히 벌리면서 견인불발의 의지를 발휘하고있다.

다른 단위들에서도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떨치고있다.

황해남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시공의 질보장에 큰 힘을 넣었다. 이들은 질은 곧 건설자의 량심이라는 자각을 안고 혼석채취에서부터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려단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작업장들을 맡고나가 세멘트와 혼석의 배합비률을 기술적요구대로 보장하고 콩크리트혼합물에 대한 진동다짐을 질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주어 돌격대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평안북도려단을 비롯한 모든 시공단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강원도정신으로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림으로써 발전소언제가 기세좋게 솟구쳐오르고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전기문제해결로 더욱 빛내인 자랑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장으로 향하려는 일군들과 대원들의 충정의 돌격전에 의해 언제건설이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현지보도반

승리의 대회장을 향해 질풍쳐 내달리는 전투적기상

화학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화학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일리마다에서 만리마속도창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학제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생산을 활성화하며 중요화학공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기술공정을 우리 식으로 개조하여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을 늘여나가야 합니다.》

화학공업성 일군들이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전개해나가고있다.

성일군들이 들끓는 현장마다에 전투과지를 정하고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나가면서 2.8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화학공장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고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증산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매달 중요지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련합기업소일군들부터가 당의 뜻대로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 화학제품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뚜렷한 작전밑에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틀어쥐고 생산지휘를 배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카바이드1,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어려운 조건에서도 카바이드전기로의 가동대수를 늘이고 로멸, 작업반면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카바이드생산을 확고히 앞세워가고있다. 아세틸렌직장, 합성직장, 청년방사직장 로동계급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면서 혁신적인 기술창안으로 화학제품생산을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고 비날론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염화비닐직장, 가성소다직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3월 천락염화비닐, 가성소다생산계획을 각각 210%, 110%이상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고 그 기세로 4월에 들어와서도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남흥과 흥남의 비료생산자들도 인민생활향상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불타는 의지를 안고 생산의 동음을 기세좋게 울려가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매 공정들에서 새 기준, 새 기록을 돌파할 높은 목표를 내걸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나가고있다. 이들은 붕탄생산공정과 가스발생공정에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원가를 극력 줄이면서 주체비료생산을 늘이고있다.

주체비료생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결사의 의지로 풀어나가면서 주체비료생산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소금공업관리국아래 제염소들에서는 지난 2월 어려운 일기조건에서도 햇소금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둔데 이어 소금생산을 줄기차게 밀고나가고있다.

남양제염소에서는 6직장을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기지로 번듯하게 꾸려놓고 생산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월과 3월에 불붙는 전투를 벌려 2.8비날론련합기업소의 가성소다생산용소금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였다.

화학공업관리국 일군들도 아래단위들에 내려가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농촌들과 탄광, 광산들에 고무호스와 폐기피대를 매달 정상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특히 평양고무공장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맡겨진 고무제품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질풍쳐 내달리는 화학공업성아래 공장, 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열정에 의해 일리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자력자강의 불길높이 통신케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평양빛섬유통신케블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평 찍음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로 빛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 새겨진 불멸의 혁명령도사의 갈피를 더듬어

만수대언덕에 자리잡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으로 참관자들의 물결이 굽이치고있다.

지난 3월 훌륭히 진변된 조선혁명박물관이 개관된 때로부터 수많은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각지의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이룩해갈 신념과 의지를 안고 끊임없이 이곳을 찾고있다.

세상에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투쟁사를 전하는 박물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선혁명박물관과 같이 최대의 정중성과 과학성, 직관성을 보장하면서 위대한 수령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 혁명박물관은 없다.

얼마전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이자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이라고,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면 조선혁명의 발전로정을 잘 알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행로가 눈앞에 선히 보인다고 하시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기둥이며 등대인 조선혁명박물관은 국보중의 국보, 혁명의 교과서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만년재보, 태양조선의 대국보관.

진정 조선혁명박물관에 새겨진 불멸의 혁명령도사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꾸려주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업적을 끝없이 전하여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혁명의 대가 바뀔수록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이 오늘과 같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될수 있은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지점적이고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여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세계에 늘도 없는 혁명박물관으로 훌륭히 전변시키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 조선혁명박물관의 개건공사를 직접 발기하신분도 그리고 형성안과 전시방안들을 여러차례 지도해주시며 공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신분도 우리 원수님이시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들을 오래도록 우러르시며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을 직접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는것만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호실들에 정중히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진문헌들과 전시된 사적자료들, 사적품들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을 잘하였다고, 전시형식과 조명효과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되여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이다. …

김일성, 김정일혁명박물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박물관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태어나고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조선혁명박물관이라는 심원한 뜻이 담겨져있는것이 아니랴.

돌이켜보면 조국이 해방된 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전통교양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박물관창설을 친히 발기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하여야 할 일, 푸여야 할 문제들이 많고많으셨지만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사적들과 자료들을 발굴수집하기 위하여 조선애국투사후원회를 조직하시고 여러차례 혁명전적지답사단을 파견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과 항일혁명투쟁연고자들이 보관하고있던 귀중한 자료들을 앞으로 창설될 박물관에 기증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과 야외상학을 마치고 휴식하는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진 사진문헌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리용하시던 여러권의 책들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수령님의 식사보장에 쓰시던 가마를 비롯하여 수많은 혁명사적품들과 유품자료, 문건자료들은 이렇게 수집되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자신께서 사용하시던 도장과 문건들을 한 일군에게 넘겨주시면서 잘 보관하였다가 앞으로 박물관이 나오게 되면 넘겨주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도장은 중국인반일부대들과 반일공동전선을 맺을 때도 썼고 국제당과 중요한 문건거래가 있을 때에도 쓰던것이라고 거기에 깃든 사적내용까지 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으시였던 귀중한 유산인 권총을 비롯하여 조선혁명박물관에 소중히 전시되여있는 혁명사적품들에는 이렇듯 잊지 못할 사연들이 깃들어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찍으신 귀중한 사진문헌도 박물관창립을 위해 내놓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최후결전을 준비하던 시기에 찍으신 이 사진문헌을 넘겨주시면서 사진을 찍게 된 유래와 거기에 깃들어있는 사연들도 말씀해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보란봉에 자리잡고있던 국립중앙력사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체계화하여 내용이 풍부하게 진렬전시할 박물관을 따로 건립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사적물들과 유적, 유물들을 발굴수집하는것은 박물관창립을 위한 선결조건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에 의해 주체35(1946)년 8월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조사발굴사업을 진행할데 대한 조치가 취해졌다.

이렇게 되여 처음으로 조직된 혁명전적지답사단은 2개월도 안되는 기간에 우리 나라 북부국경일대와 항일의 전장들을 답사하면서 100여점의 사진자료와 실물자료, 문건자료들을 발굴수집하게 되였다.

다음해 5월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다시 항일혁명투사들을 항일혈전의 자욱이 새겨진 지역들에 파견하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 무기와 문건들을 직접 파묻은 투사들과 그곳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답사단에 더 망라시키도록 하시였다.

답사단은 안도와 무송을 비롯한 여러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 사용하신 놋그릇과 유격대원들이 쓰던 2정의 기관총, 연길폭탄 등 40여점의 귀중한 혁명사적물과 유물들을 발굴수집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조선혁명박물관(당시 국립중앙해방투쟁기념관)은 짧은 기간에 준비사업을 끝내고 주체37(1948)년 8월 1일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창립!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의 빛나는 실현이였으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천만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위력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였다.

하지만 미제가 저지른 전쟁으로 하여 박물관의 개관준비사업은 커다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조국과 인민을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에로 불러일으키시며 잠시의 휴식도 없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환경에 맞게 박물관의 소장품들을 안전하게 보위할데 대한 문제로부터 조국해방전쟁자료수집문제, 답사단을 다시금 피어린 항쟁사가 새겨진 지역에 파견하여 유물들과 자료들을 수집할데 대한 문제, 전람회를 통한 대중교양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이렇듯 위대한 령도가 있어 전후복구건설이 한창이던 주체44(1955)년 8월 13일 조선혁명박물관(당시 국립중앙해방투쟁박물관)은 드디어 력사적인 첫 개관을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면에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어린시절, 초기혁명활동, 항일무장투쟁과 관련한 자료들을 25개의 진렬실에 력사적으로, 체계적으로 전시한 박물관(오늘의 김성주소학교건물)은 혁명전통교양의 훌륭한 거점이였다.

주체47(1958)년 11월 박물관을 처음으로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8차례에 걸쳐 조선혁명박물관에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

그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몸소 고증자가 되시여 귀중한 시간을 바쳐 사적내용들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박물관에 요구되는것이라면 자신께서 오래동안 보관해두시였던 사적물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다.

박물관진렬전시의 력사적시점과 포괄범위를 19세기 60년대부터 100년간으로 잡아주시고 혁명사적사업에서 3위1체의 원칙을 구현할데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조선혁명박물관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조선혁명박물관 연혁사의 갈피들에 빛나고있다.

조선혁명박물관은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업적, 고매한 덕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에서 중심적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롭게 정식화하신 조선혁명박물관의 성격과 사명은 혁명박물관을 김일성주의교양의 전당으로 더 잘 꾸리는데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였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던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는 사업은 수령님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보장하고 옹호보위하기 위한 사업이며 수령님의 위대성과 거룩한 영상을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동상은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위대성과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자애로운 모습이 그대로 안겨오게 잘 형상하여야 하며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웅장하고 정중하게 모셔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어느날 만수대대기념비의 중심에 자신의 동상을 높이 모시려고 한다는것을 알게 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그 계획을 당장 취소하라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과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지 못한 만수대대기념비는 존재의미가 없다는 의지를 더욱 굳히시였다. 그것은 온 나라 인민모두의 간절한 념원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로 꾸리는 사업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의 전시내용을 수령님의 혁명활동전반을 력사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줄수 있게 잘 구성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그 구체적방도에 대해서까지 밝혀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건설 전과정을 령도하시였다.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이 건립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모여들었다. 하루일을 끝낸 수도의 근로자들과 평양견학을 왔던 사람들, 휴가를 받고 고향으로 가던 군인들도 만수대로 달려와 충정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삼지연의 진달래, 금강산의 목란꽃나무, 수백년 자란 향나무 그리고 진귀한 돌들과 기이한 화초들을 보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주체61(1972)년 10월 평양에 왔던 남측대표단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참관한적이 있었다. 이때 남측의 한 성원은 나어린 녀학생들에게 만수대언덕에 모신 수령님의 동상 발침돌무게가 얼마나 되는가고 물었다. 그때 한 학생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버지원수님을 받드는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의 무게를 합친것과 같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의 심장의 무게?!》

남측성원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며 다른 말을 더 하지 못하였다.

후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자기의 글에서 《평양소녀의 말대로 동상을 받드는 발침돌의 무게가 남북 5천만 민족의 심장을 합친 무게라면 김일성주석님께서 온 민족의 심장속에 함께 계시며 온 겨레의 마음에 받들려 높이 서계신다는 뜻일것이다. 얼마나 금언같은 대답인가.》라고 했다고 한다.

정녕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온 세계에 떨치고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세기의 언덕에 높이 솟은 력사의 대기념비이며 민족의 대양이신 수령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천세만세 우러러모시려는 온 민족의 열화와 같은 마음이 받들어올린 충정의 대기념비이다.

주체61(1972)년 4월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제막식과 조선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성대히 거행된지 얼마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으시였다.

차에서 내리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건히 우러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뜨거운것이 고패쳤으랴.

총시관에 이어 매 호실들을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박물관사업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력사와 관련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깊은 감회와 추억에 잠겨 보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의 진렬전시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진렬전시에서 주체적립장을 전지하고 자료의 순결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며 유물과 자료들을 많이 전시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원칙적문제들은 조선혁명박물관 진렬전시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지침이였다.

만수대대기념비를 자주 찾으시며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한 방도를 찾아주시고 조선혁명박물관에 귀중한 사적물들과 현대적인 설비들까지 보내주신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 이바지하도록 하신 사실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80돐을 맞을 때에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새로 발굴된 항일혁명투쟁자료들을 보충전시하는것과 함께 1970년대이후 20여년간의 혁명투쟁력사를 새로 진렬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뜻밖에 당한 민족의 대국상으로 사람도 산천도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때 이 땅에 수령영생위업의 위대한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중에 더욱 굳히신것은 무엇이였던가. 조선혁명박물관을 영원히 우리 수령님의 박물관으로 빛내이실 변함없는 의지가 아니였던가.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리어있는 승용차와 접이식회전의자를 비롯한 더없이 귀중한 혁명의 만년재보들을 모두 조선혁명박물관에 진렬전시하도록 하시였고 박물관일군들에게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시던 파일나무의 열매들도 친히 보내주신것이였다.

주체88(1999)년 태양절을 맞으며 어버이수령님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혁명전우들의 투쟁자료와 유품들을 전시하여놓고 《수령님과 전우관》을 개관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진정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였다.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정연하게 보여주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혁명적재보의 위대한 보물고로 훌륭히 꾸리도록 끊임없는 심혈을 기울이신것은 진정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이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박물관으로!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변함없는 결심이고 의지이다.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12월의 그 나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저미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기에 뜻깊은 주체101(2012)년의 광명성절을 맞으며 만수대창작사에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기마동상을 함께 모시도록 하신데 이어 만수대언덕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신것이였다. 만수대언덕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시며 그토록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에 떠받들려 선군조선의 앞길을 축복해주시며 환히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지게 되였다.

주체104(2015)년 2월 10일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돐을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강성번영하는 선군조선의 혁명적대경사로 맞이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이 결정서의 첫 조항에 바로 조선혁명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새롭게 꾸리는 등 혁명전통교양거점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를 내용별로, 시기별로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게 학술체계구성을 잘할데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기도 하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전우관》을 꾸리도록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신것을 비롯하여 박물관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이 집대성된 대국보관으로 전변시키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조선혁명박물관의 오늘이 있을것인가.

혁명전통은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이다. 조선혁명박물관을 가지고 있는것이야말로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긍지이며 박물관에 보존전시된 모든 사적물들과 자료들은 대대손손 길이 전해가야 할 가장 귀중한 재보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에 거룩한 자욱을 아로새기신 력사의 그날 조선혁명박물관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승리의 력사를 립증하는 혁명사적품과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 보충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혁명전통교양의 보물고를 풍부히 할데 대한 문제, 박물관사업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의 원칙,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의 원칙, 력사주의와 과학성의 원칙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문제, 혁명사적물들을 원상그대로 영구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등 박물관의 관리운영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는 조선혁명박물관의 일군들과 강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의 승리의 력사가 어떻게 마련되였으며 빛나게 이어져오고있는가를 전반군민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며 조선혁명박물관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대국보관으로 높이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려명거리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현대건축거리의 본보기, 표준으로, 로동당시대의 선경으로 일떠선 려명거리가 새집들이경사로 련일 흥성이는 속에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26일 새 살림집에 입사한 가정들을 방문하였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에서 제일 큰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솟아난 려명거리의 집집마다에는 사회주의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하며 만복을 누리는 인민의 기쁨이 끝없이 넘쳐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리만건동지, 오수용동지, 곽범기동지, 김영철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노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이 멋있어기리의 궁궐같은 새 집들에 살림을 편 교육자, 과학자, 철거세대 주민들의 가정들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51-44호동 7층 3호에 입사한 김일성종합대학 산림과학대학 교원 마성수의 가정과 다층, 초고층살림집들에서 행복을 누려가는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 연구사 림고근, 전쟁로병 조운현,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소장 안정수, 대성구역공원관리소 로동자 강성철, 류원신발공장 로동자 백일룡, 대성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림정옥, 중앙열망사업소 로동자 김철호의 가정을 비롯한 부부과학자, 교원, 영예군인, 로동자가정들에서 집주인들이 책임일군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책임일군들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는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정속에 최상급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에 입사한 세대의 주민들을 축하해주었다.

훌륭히 꾸려진 여러칸의 살림방들과 부엌 등 살림집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의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친어버이의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다심한 손길아래 생활상편리가 최대로 보장된 새 집을 무상으로 받아안은 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가정용품들을 방문기념으로 넘겨주었다.

집주인들과 자리를 같이한 책임일군들은 가정형편과 살림살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세집들이를 한 소감도 주의깊게 들었으며 오늘의 이 경사를 안아오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의 로고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이야기해주었다.

집주인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랑과 정까지 합쳐 정범한 교육자, 과학자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에게 꿈만 같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격정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였다.

그들모두는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보살펴주는 온혜로운 삶의 품, 영원히 안겨 살 위대한 어버이의 품이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떠받들려 사는 우리 인민들처럼 복받은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무궁토록 강성번영할 주체조선의 밝은 앞날을 펼쳐가는 우리 당의 위업실현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려는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책임일군들은 집주인들의 기쁨과 격정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나아가자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의 참된 충복, 충실한 심부름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교육자, 과학자들과 철거세대 주민들이 대를 두고 전해갈 크나큰 은정을 한생토록 잊지 말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초소마다에서 혁신적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장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들어설것을 당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철칙으로 새겨주신 군중규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가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대격전장 그 어디에서나 인민군군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흔히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우리에게는 물과 공기만 있으면 됩니다. 인민들에게 사소한 부담도 주지 말라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진정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면 선군혁명력사의 첫 기슭에 새겨진 감동깊은 이야기가 되새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조직된 진정한 인민의 군대인 항일유격대의 혁명전통을 계승하였습니다.》

일제의 악랄한 봉쇄책동으로 하여 소왕청유격구에 기근이 들고있던 주체22(1933)년 4월 어느날이였다.

적통치구역에 식량공작을 나갔다가 적들의 삼엄한 경계로 하여 실패하고 돌아오던 유격대의 두 대원은 어느 한 감자밭모퉁이에서 우연히 감자음을 발견하게 되였다.

음에는 미처 날라가지 못한 감자가 퍼그나 남아있었다.

그들은 감자임자를 만나려 하였으나 찾을수가 없어 그냥 감자를 한짐씩 지게 유격구로 돌아오고말았다.

이 사실은 즉시 위대한 수령님께 보고되였다.

곧 그들을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굶고있을 중대성원들을 생각하여 그리고 감자음의 주인을 찾아갈 형편이 못되여 감자를 거저 가져오게 된 동무들의 심중을 충분히 리해할만 하다, 그러나 우리 유격대에는 어떤 역경과 환경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의 엄격한 규률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혁명적군중규률이라고 준절히 일깨워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할 때 어느 한순간도 인민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유격대의 명칭속에 《인민》이라는 고귀한 두 글자를 반영한것이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내건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두 대원은 즉시 감자값을 물어주기 위해 감자주인을 찾아 길을 떠났다.

신고끝에 감자주인을 찾아낸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깊이 사죄하고 감자값을 내놓았다.

그러자 감자주인은 유격대를 돕지는 못할망정 어떻게 그 값을 받겠는가고 하면서 굳이 사양하였다.

이때 두 대원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유격대의 규률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우리의 혁명무력이 진정한 인민의 무장력으로 강화발전되여온 나날에 새겨진 수많은 일화들중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당중앙과 심장의 맥동을 같이하며 백열전으로 들끓는 백두전구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결사관철의 의지를 안고

216사단에서

삼지연군건설장에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이며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216사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본격적인 공사에 진입하여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며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삼지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크게 꾸려야 하겠습니다.》

216사단 정치부에서는 모든 건설전역에서 총돌격전이 벌어지는데 맞게 사상전의 포성을 높이 울리며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각 려단별선전선동수단전시회가 진행되고 선동원, 방송원, 전투속보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각 려단, 련대별경연의 방법으로 진행되여 화선식정치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216사단 현장지휘부에서는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통나무와 블로크, 세멘트를 비롯한 자재보장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문전기재출동식과 키공구전시회를 각 단위들의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조직하였다. 이와 함께 모든 려단, 련대들에서 건설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도록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216사단 618건설려단에서 공사대상들에 대한 주별공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가고있다.

백두산종합박물관건설을 맡은 618건설려단 자강도련대에서는 작업대상별에 따르는 대대별공사과제를 정확히 주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그리하여 수백㎥의 기초굴착과 수천㎥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해제낀 기세드높이 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618건설려단 성, 중앙기관련대의 돌격대원들은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각종 규격의 건구설치, 전기선놓이기를 내밀어 마감건재중간생산기지건설을 앞당길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216사단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에서 철길건설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려단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예견치 않았던 구간들에서 돌사태와 붕락으로 불리한 정황에 부닥친 조건에서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구간들에서 로반과 피암차굴, 각종 소구조물, 철다리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역사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216사단 량강도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갑자가루공장건설을 위한 블로크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올리였다. 려단에서는 보온덧집에 의한 온도보장대책을 세워 블로크생산을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다음단계공사를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216사단 체신련대의 돌격대원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맡은 대상건설을 위한 통나무생산 및 수송, 및케블수송 등 모든 지표별계획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216사단 전력련대의 돌격대원들은 배개봉의 아름다운 불야경과 더불어 삼지연읍거리에 펼쳐질 광명한 래일을 그려보며 수백kW능력의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기초굴착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 맡은 대상공사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삼지연읍지구 공공건물개건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려단지휘부에서는 4월중에 계획된 공공건물들을 제기일에 완성하기 위한 공정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선후차를 옳게 정한 다음 맡은 대상공사들을 립체적으로 밀고나가 각 련대들에서 계획을 일별, 주별, 월별로 무조건 넘쳐 수행하도록 하고있다.

삼지연군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개건보수를 맡은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안남도련대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중앙홀과 종합강의실, 학습실에 대한 벽체미장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그들은 매일 기술전습을 하는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앞선 작업방법에 대한 보여주기사업과 현장기술학습 등을 실속있게 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삼지연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건설에 착수한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성, 중앙기관대대의 돌격대원들은 지대정리와 기초굴착, 철근가공에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백수십종에 1만 2 000여점의 설비와 수리공구, 예비부속품을 마련한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운수기동련대의 운전사들은 물전기재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혼석과 통나무, 세멘트수송에서 련일 혁신하고있다.

914지휘부에서는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꾸리기 위하여 자급비료만출, 감자종자선별, 감자조직배양모생산, 뜨락또르수리, 농기계부속품생산, 감자싹띄우기장보수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가고있다.

려단, 련대들에서는 비상히 앙양된 돌격대원들의 열의에 맞게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과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날마다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 설계분과에서는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기로 되여있는 여러 대상들에 대한 설계를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에서 최대로 앞당겨 끝내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있다.

216사단의 모든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혁명의 성지 삼지연군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오늘의 하루하루를 기적과 위훈창조로 빛내여가고있다.

세차게 벌어지는 경쟁열풍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성, 중앙기관련대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지금은 4월이다.

하지만 216사단 혜산-삼지연철길건설려단 성, 중앙기관련대 돌격대원들이 일하는 건설장에는 겨우내 쌓인 눈이 아직 남아있고 땅도 녹지 않았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은 보온덧집을 짓고 그속에서 역사기초콩크리트치기와 총막콩크리트치기, 벽체축조를 다그치고있다.

지난 2월 성, 중앙기관련대 돌격대원들이 리명수청년역건설에 착공한 어느날이였다.

그날 대오앞에 나선 련대장은 3월말까지 역사기초공사를 끝낼것을 호소하면서 모든 대대들에 사회주의경쟁을 선포하였다.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높았다.

그러나 철도역건설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 덩치가 큰 역사를 건설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습식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건설을 하자면 물이 있어야 하였다. 하지만 역사를 건설하여야 할 곳에는 물원천이 없었다.

련대에서는 병실로부터 공사장까지 수도관을 늘였으나 북방의 엄혹한 추위에 수도관은 얼어터지고말았다. 그리하여 련대에서는 길을 새로 내고 자동차로 물을 운반하기 시작하였다. 처음 며칠동안은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 진펄지대이다보니 날이 갈수록 도로의 상태가 나빠져 자동차들이 빠지군 하였다. 그때마다 돌격대원들은 자동차에 어깨를 들이밀고 바줄을 메여 당기면서 앞으로 전진해나갔다.

대대장들은 앞채를 메고 백두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돌격대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역사기초파기가 시작되던 때에 련대에서는 삽차를 들이밀었으나 허사였다. 어찌나 땅이 바위돌처럼 얼었는지 삽차의 삽날끝이 우그러질 정도였다.

옥박전을 벌리듯이 돌격대원들은 함마전에 나섰다. 불꽃이 일 정도로 함마를 휘두르던 그날날 손에 생긴 물집을 터뜨린 적은 몇번이고 함마자루는 또 얼마나 교체하였던가.

수십일간의 치렬한 전투끝에 파낸 토량은 산을 이루었다.

기초콩크리트치기가 시작되자 돌격대원들은 장작불에 달아오른 철판우에 얼어든 흔석을 올려놓고 펄펄 끓인 뜨거운 물로 세멘트혼합물을 이기면서 공사를 다그쳤다.

마침내 기초콩크리트치기가 끝나고 보온덧집속에 벽체가 올라가던 어느날 련대장은 지휘관들의 현장협의회에서 사회주의경쟁순위를 놓고 토의에 붙이였다.

4대대장이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경쟁순위를 가르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련대장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타같이 만리마를 타고 승리의 결승선에 들어섰으니 승부를 내기 곤난하게 되였습니다. 이번 경쟁총화에서는 모든 대대들이 다 1등을 하였다는것을 선포합니다.》

련대지휘관들과 대대장들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건설장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긍지높이 바라보았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 역사건설의 돌파구를 한치한치 열어나간 돌격대원들의 억센 기상인양 붉은기는 세차게 나붓기고있었다.

난관을 박차고 펼쳐가는 기계화포전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토지정리돌격대 량강도려단에서 종합적기계화실현을 위한 토지개간전투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우량품종과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며 영농공정별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워 알곡생산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 11월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군을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으로,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방도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려단지휘부에서는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려단에서는 수십종에 수천점의 예비부속품들을 마련하고 수십대의 불도젤, 뜨락또르, 련결농기계대수리를 진행하였으며 대대별로 개간계획을 세우게 하고 현지에서 보여주기를 진행하여 올해 토지개간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얼마전 들끓는 전투현장에서는 불도젤, 뜨락또르출동식이 진행되였다.

출동식에 참가한 불도젤, 뜨락또르운전수들과 각 대대 돌격대원들은 물전기재들의 기술상태, 예비부속품준비정형을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었다.

출동식이 끝난 후 올해의 개간전투가 시작되였다.

지난해 3월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에 일제히 로력과 기계화수단을 전개하여 몇달사이에 잡판목베기와 땅뒤지기, 씨레질, 정토, 밭갈이계획을 115%로 끝낸 려단에서는 올해에도 그 성과를 무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일찌기 북부고지대를 개발하여 이 지대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애국념원을 백두대지에 활짝 꽃피워 삼지연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한 표준모범단위로 꾸리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돌격대원들은 개간전투에서 날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을 떨치고있다.

북부고지대의 엄혹한 자연기후조건으로 하여 난관이 겹쌓였지만 돌격대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십만㎥의 토량처리, 돌추기, 용랭이메우기와 련속적인 발파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총계수농장에 달려나간 혜산시와 김정숙군, 갑산군대대의 돌격대원들은 토양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드세찬 공격전을 늘이대고있다.

소백산, 포태농장의 토지개간을 맡은 삼지연군, 백암군대대에서는 물전기재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실동률을 최대한 높여 매일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특히 자기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운전수들은 불도젤수리정비를 제때에 하고 만가동시켜 증흥농장의 폐기밭들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기 위한 전투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어려 농장의 토지개간전투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김형권군, 보천군, 삼수군, 풍서군대대들에서는 거리가 먼 조건에 맞게 현장에 지휘부를 전개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투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개간전투는 사회주의경쟁열풍속에 더욱 활기를 띠고있다.

각 대대들에서는 단계별전투계획과 각종 기계화수단들의 정상가동을 비롯한 정령요강에 제시된 목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대중적영웅주의와 불굴의 헌신성에 의하여 토지개간전투장은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 성과는 날이 갈수록 계속 확대되고있다.

건설장에 꽃피는 영웅청년문화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문예작품창작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여년간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수백편의 문예작품을 창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들이 살며 일하는 모든 곳에서 영웅청년문화가 활짝 꽃펴나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문학의 대중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백두산영웅청년려단에서는 문학소조를 널리 조직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태양절, 광명성절을 비롯한 국가적인 명절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을 계기로 현상응모를 조직하여 이 사업이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있다.

려단지휘부에서는 문학소조원들의 창작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각 련대 련대장, 정치부장들이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문학소조에 망라된 청년돌격대원들은 원쑤들과의 피어린 격전을 치르는 속에서도 시와 노래를 창작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시련대 문학소조원들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서두수의 달밝은 밤이면 온갖 난관을 파감히 헤고나가는 투쟁과정에 체험한 심정을 적은 수첩을 펼쳐놓고 서로가 토론을 하면서 창작전투를 벌리였다.

평안남도련대 문학소조에서는 소조원들이 당에서 높이 평가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들을 학습하고 다음기운영날자까지 작품의 주제를 내놓게 하여 그들의 창작열의를 높여주었다.

함경남도련대 문학소조에서는 창작된 작품초고를 먼저 소조원들속에 론독시킨 다음 그것을 놓고 수정방향을 토의하는 방법으로 합평회를 진행하였다.

자강도련대에서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 철야전투의 나날에 문학소조운영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전투장과 병실들이 문학열기로 들끓게 하였다.

려단문학소조책임자 박용준동무는 각 련대문학소조운영을 계기로 청년돌격대원들이 들끓는 현실속에서 찾아낸 종자와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도록 적극 이끌어주었다.

이 과정에 려단에서는 여러편의 문예작품들을 창작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어리해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창작한 글작품집 《백두여 너를 닮으리》, 소묘작품집 《우리는 백두청춘》, 직관사진화첩 《태양성지의 영원한 불빛되리》를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글작품집 《백두의 행군길 끝까지 이어가리》와 《청년강국의 주인공들》, 해학작품집 《웃음과 랑만이 넘치는 백두청춘시절》, 소묘작품집 《창조의 기인들》, 직관사진화첩 《선군청년문화의 창조자들》, 사진화첩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를 친히 보아주시고 모두 훌륭하다는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다.

려단에서는 문학소조활동과정에 창작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신문, 잡지를 비롯한 출판보도물에 발표하도록 하여 문학소조원들의 창작열의를 높여주고 청년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려단에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이 문예작품창작에서 체득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도록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문예작품에 대한 실효모임을 실속있게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떨쳐나선 백두산영웅청년려단의 지휘관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들끓는 건설현장에서 문예작품창작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비약의 열풍 일으킨다

로동당이 키운 평남탄전의 영웅청년돌격대장

천성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 대장이였던 로력영웅 최순일동무의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은 전후 민청원개발자들로 조직했던 박길송청년돌격대로부터 오늘날의 김혁청년돌격대, 리수복청년돌격대에 이르기까지 평남탄전에서 청년돌격대가 제일 많은 단위, 전국적으로 청년돌격대운동이 가장 활발한 단위로 유명하다. 현재 탄광의 6개 청년돌격대중에서도 그 력사에 있어서나 전투력과 명성에 있어서 첫손가락에 꼽히는 김혁청년돌격대의 대장이였던 최순일동무는 돌격대가 조직된 1990년부터 27년세월 평남탄전에서의 청년돌격대운동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긴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로력영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들의 사회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게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도 당의 품이며 청년들의 오늘의 보람찬 삶과 미래를 꽃피워주는것도 당의 품, 사회주의조국의 품입니다.》

최순일동무는 청춘시절의 한때를 잘못 살아온 사람이였다. 그러나 심장의 고동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어머니당이 준 새 인생, 새 청춘을 값높이 빛내이고 로동당의 영웅청년돌격대장으로 영생하는 그의 삶은 오늘의 만리마시대에 당과 조국이 아는 위훈의 주인공이 될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 이 나라 청춘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청춘시절은 두번다시 오는가

지금으로부터 27년전인 주체79(1990)년 6월 24일이였다. 천성청년탄광의 큰길로는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스물아홉명의 청년들이 렬을 지어 행진해가고있었다. 보람찬 병사시절을 마치고 석탄전선으로 탄원해오는 제대군인대렬도,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낄 중대한 임무를 맡고 출전하는 청년탄부들의 전투대오도 아니였다.

그들은 한때 인생의 걸음을 잘못 내디디여 청춘시절에 오점을 남긴 청년들, 부모의 속을 태우고 탄광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청년들이였다. 그들의 앞장에서 《김혁청년돌격대》라는 글발이 새겨진 붉은 기발을 든 27살의 청년 최순일동무가 대오를 이끌고 씩씩하게 보폭을 내짚고있었다.

키는 작고 체소하지만 만만치 않은 강단이 느껴지는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거리는 최순일동무의 과거를 탄광안팎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놀라움은 없지 않았지만 탄광사람들은 누구나 이들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마치도 모범청년들의 대렬행진을 대하듯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아직은 어머니조국을 위해 석탄 한삽도 바친것 없는 불효자식같은 자기들에게 꽃다발까지 안겨주는 탄광사람들의 진정을 대할수록 최순일동무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숙어졌다. 몸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왔다. 한생 성실한 모범로동자로 일해온 그 아버지가 무던히도 속을 태우기만 하는 아들에게 눈물을 삼키며 웨치던 목소리였다.

《사람구실하기 전엔 내앞에 나타나지 말아!》

뒤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대탄광 6갱 김혁청년돌격대 대장 김영남동무, 이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이미 그는 평남탄전의 소문난 청년돌격대장으로 아득한 높이에 서있었다.

《걸심을 잘했소. 이왕 새 출발을 함바에는 동무와 같은 청년들을 모두 데리고 청년돌격대로 청춘을 다시 시작하라구. 남은 청춘시절을 남들의 곱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8.28청년돌격대판리국 국장으로 사업하고있는 김영남동무는 인생의 새 출발을 결심한 최순일동무와 함께 도청년동맹위원회로 가던 그날의 일을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뜨겁게 회상하군 한다.

당조직과 청년동맹조직에서는 최순일동무를 비롯한 29명의 청년들을 만갑게 맞아주었고 심중한 토의끝에 그들로 김혁청년돌격대를 조직해주었다. 그날 《우린 대장동무를 믿소.》하고 굳게 손잡아주던 도청년동맹 일군들과 탄광당일군들의 믿음어린 목소리와 눈빛들을 심장으로 되새기며 최순일동무는 돌격대기발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죽어도 이 기발을 놓지 않으리라!)

이렇게 최순일동무는 27살에 청춘의 삶을 다시 시작하였다.

그러나 두사의 이름으로 빛나는 돌격대기발을 쳐들었다고 하여 그대오가 절로 혁명선렬의 고결한 정신을 닮는것은 아니다. 눈물을 흘리며 맹세를 다졌다고 해서 청년돌격대다운 위훈의 자욱자욱만을 찍을수 있는것은 더더욱 아니다.

최순일동무는 당이 준 새생의 청춘을 하루를 백날 맞잡이로, 1년을 10년 맞잡이로 빛내이자면 최전선의 육탄용사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과 모든 대원들이 다름아닌 자기의 피땀으로 한톨기한톨기 실적을 쌓아야만, 그것도 가장 어렵고 힘든 돌파구에서 희생까지 각오하고 투신해야만 동지들과 조국앞에 떳떳한 진짜배기 김혁청년돌격대가 될수 있다는것을 그는 뼈에 새기고있었다. 최순일동무는 탄광일군들에게 말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 돌격대에 맡겨주십시오.》

그들은 돌격대라는 명칭 그대로 돌격전의 최전방에서 용맹하고 완강하게 싸웠다. 착암기가 없으면 정대와 곡괭이로, 목약이 부족하면 함마로 암벽을 들부셨다. 27년동안 어느 한해도 전투계획을 수행 못한적이 없으며 탄광의 석탄증산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 모든 돌격전투들에 김혁청년돌격대가 척후대, 결사대로 참가했다는 사실만 놓고도 이들이 당앞에 다진 인생의 새 결심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가를 잘 알수 있다.

우리와 만난 탄광 기술일군인 최용문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최순일동무를 비롯한 김혁청년돌격대원들이 저 큰길로 행진해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27년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옹골차게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진짜배기돌격대원으로 성장하는것을 보면서 돌격대는 청춘의 용광로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한 일이 제기될 때마다 탄광 참모부에서 찾으면 〈알았습니다.〉, 〈집행했습니다.〉라는 단마디 대답밖에 모르던 최순일대장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느 한 갱에서 시급히 암축기를 이설해야 할 전투과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탄광 참모부에서는 오랜 토의끝에 그 힘겨운 과제를 김혁청년돌격대에 위임하였다. 탄광책임일군은 최순일대장에게 당부하였다.

《조건은 매우 불리하고 어렵소.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5일안으로 해내야 하오.》

막장안에서 다른 막장으로 육중한 암축기를 옮겨가야 할 거리는 3㎞, 그 구간에는 사갱들도 여러개소나 있었다. 수평갱도에서는 분해한 암축기를 대차에 올려싣고 운반할수 있었지만 레루가 없는 사갱들이 문제였다.

최순일동무는 걸사진을 앞둔 지휘관의 예리한 시선으로 전투형로를 살펴보고나서 대원들에게 말했다.

《무조건 하루동안에 전투를 끝내야 하오. 그래야 나흘간이라는 시간을 쟁취할수 있소.》

일단 결심한 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장을 보고야마는 대장의 도끼날같은 기질을 잘 아는 돌격대원들은 두말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가렬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다. 정사가 급한 사갱들에서의 암축기이동은 전쟁시기 직사포를 고지우로 끌어올리던 포병용사들의 결사적인 전진을 방불케 했다. 끌고 밀며 당기고 비비면서 돌격대원들은 순간의 멈춤도 없이 한걸음한걸음 전진해나갔다.

그날 전투에 참가했던 돌격대원들은 표범처럼 앞뒤로 뛰여다니며 길을 열고 어깨를 들이밀던 대장의 사생결단의 기세에 격동되여 불사신같은 힘을 폭발하던 일들을, 《시간, 시간!》하고 슴가뻐 재촉하며 암축기를 떠밀고나가던 그때 지난날의 하루하루가 뼈아프게 후회되던 일들을 가슴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전투가 끝나기 바쁘게 지령전화를 들고 탄광 참모부에 전투결과를 보고하는 최순일동무의 목소리는 기쁨에 떨리였고 눈금은 촉촉히 젖어있었다. 전투를 하루동안에 끝내지 못할가봐 속이 조마조마했었다고 미소짓는 대장의 눈가에 어린 물기를 보는 순간 돌격대원들의 가슴도 뭉클 젖어들었다. 값없이 흘려보낸 청춘시절의 공백을 봉창하자면 하루를 백날로, 1년을 10년 맞잡이로 살아야 한다는 최순일동무의 인생관이 눈가에 맺힌 그 맑고 깨끗한 눈물방울에 그대로 비끼여있는것 아닌가.

하루동안에 암축기이설을 끝내고 제창굴진에 진입한 김혁청년돌격대의 위훈은 《날아다니는 돌격대》라는 제목으로 전투속보판에 크게 소개되였고 온 탄광을 삼시에 감탄시켰다.

최순일동무는 당에서 안겨준 새 청춘, 새 인생을 살고있는 자신과 돌격대원들의 귀중한 삶이 단 한점의 리도 없는 깨끗한 하루하루로 충만되기를 열렬히 바랐다.

언제인가 발파를 앞둔 막장에서 최순일동무가 작업중지구령을 내린적이 있었다. 아무리 세여보아야 계획했던것보다 천공구멍이 하나 모자랐던것이다. 사연을 알아보니 압축공기가 약하여 한구멍을 마저 뚫지 못한채 교대시간도 다되고 하여 그냥 발파를 하기로 했다는것이였다.

레사를게 하는 작업조장의 그 말을 들은 최순일동무는 말없이 착암기를 틀어잡았다.

얼마후 쿵, 쿵— 귀맛좋게 울리는 발파소리를 가려들으며 얼굴에 흐뭇한 웃음을 짓던 최순일동무는 돌격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탄광에 로력이 모자라서 우리 돌격대를 조직해준게 아니요. 부모의 속을 태운 잘못은 후날 용서를 받수 있어도 당의 은혜를 갚지 못한 청춘시절의 죄는 한생에 가장 큰 죄악으로 남는 법이요. 청춘시절은 두번다시 오지 않소!》

2011년 6월 23일, 최순일동무에게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돌격대가 조직된 뜻깊은 날을 하루 앞두고 우리 김혁청년돌격대에 영웅이 났다고 너무 기뻐 껑충껑충 뛰는 청년들에게 최순일동무는 눈물이 글썽해서 이야기했다.

《이 영웅메달은 최순일의것이 아니라 우리 김혁청년돌격대의 영웅메달이요.》

청춘시절은 두번다시 오는가.

위대한 만리마시대에 선구자가 되고 영웅이 될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는 청년들에게 혹 순간이나마 청춘시절은 두번다시 오지 않는다는 진리를 잊고 사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이 안겨준 새생의 27년을 청년돌격대장으로 빛내인 최순일동무의 심장의 목소리로 말해주고싶다.

《혁명투사 김혁동지는 23살에 〈한별만세!〉를 심장으로 부르며 3층집에서 몸을 던졌소. 동무들, 투사의 이름을 지닌 청년돌격대는 김혁동지처럼 청춘을 살아야 하오.》

나는 청년돌격대 대장이다

최순일동무의 가정에도 어느 집에서나 볼수 있는 부피두툼한 사진첩이 있다. 그러나 두 아들이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오늘까지도 그 사진첩에는 단 한장의 가족사진도 없다.

최순일동무가 만든 그 사진첩에는 돌격대가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찍은 사진들과 전국적인 고속도굴진경기들에서 우승하여 찍은 사진들을 비롯한 위훈의 집체사진들, 당원의 영예를 지니고 국가수훈을 받아안은 청년들, 중앙의 대회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있다. 돌격대가 품어안아 키운 부모없는 청년들의 성장모습,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돌격대의 남녀청춘들의 결혼사진들도 사진첩의 갈피에 있다.

최순일동무의 안해와 두 아들의 지난 시절의 모습들은 돌격대의 집체사진들속에 함께 있었다. 가정을 이룬 얼마후부터 최순일부부는 돌격대와 한지붕아래에서 살았고 두 아들도 돌격대와 한가마밥을 먹으며 자랐다. 맏이 최대혁이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입대하여 집을 떠날 때에도 돌격대원들이 가족이 되여 바래주었다.

청년돌격대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각이한 생활경위와 경력, 서로 다른 나이와 성격, 제나름의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집을 떠난 청년들이 한지붕아래에서 한가마밥을 먹으며 청춘시절을 보내는 집단이 청년돌격대이다. 이런 집단을 당이 바라는대로 하나의 슴결과 발걸음으로 움직이는 강철의 청년대오로 만들자면 제일 절실한것이 다름아닌 혈육의 정이라고 최순일동무는 생각하였다. 더우기 청춘시절에 오점을 남긴 청년들, 부모없는 청년들을 비롯하여 생활경위가 복잡한 청년들이 대반인 그들의 돌격대인 경우에 한가정과도 같은 혈육의 정을 떠나서는 전투도 생활도 규률도 론할수가 없었다.

최순일동무는 대장이기 전에 아버지가 되여 그들모두를 품어안았다.

우리는 돌격대의 당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하고있는 리경렬동무에게서 뜻밖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사실 저도 일찌기 부모를 잃고 고난의 나날에 형과 함께 어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안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있었습니다. 김혁청년돌격대가 한가정처럼 산다는 소문을 듣고 우리 형제가 최순일대장을 찾아갔는데 그가 〈우리 집에 가자구.〉하고 손을 잡아끌더군요. 그의 집이란 김혁청년돌격대 숙소와 한지붕밑에 있는 자그마한 단칸방이였습니다.》

그날 밤 한이부자리에 누워 청춘시절에 뿌리를 들고 되는대로 살면 아무 얼매도 없이 인생을 망친다고 따뜻이 타이르던 최순일동무의 목소리를 리경렬동무는 두고두고 잊지 못하고있다. 잠든 그의 곁에서 해진 단벌바지에 내의도 없는 종아리를 어루만지던 정찬 손길, 밤새워 자기 내의를 줄여 머리맡에 놓아준 아버지같은 그 모습을 리경렬동무가 어이 잊을수 있으랴.

돌격대의 핵심으로, 혁신자로 자라난 리경렬동무가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대오에 들어설 때 최순일동무는 그의 입당보증을 섰다. 세월이 흘러 리경렬동무가 돌격대의 당세포위원장으로 사업하게 되였을 때 최순일대장은 그의 손을 꽉 잡고 기쁨에 넘쳐 말했다.

《함께 일을 잘해봅시다. 당세포위원장동무!》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잦을 날 없다고 숱한 청년들의 가장이 된 최순일동무에게는 근심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다. 지난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여 집단생활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비위에 거슬리면 돌격대를 훌쩍 떠날 생각부터 하는 청년들을 한사람한사람 바른길에 이끌어세우느라 그가 기울인 노력이 그 얼마였으랴.

오늘은 3갱에서 초급일군으로 일하고있는 안철동무 역시 돌격대의 구대원이였지만 거센 성격때문에 최순일대장의 속을 많이 태웠다고 한다.

(돌격대 아니면 일할데가 없을라구!)하고 배낭을 메고 떠났던 그를 최순일동무는 기어코 돌격대로 다시 데려왔다.

《우리야 김혁청년돌격대의 첫 대원들이 아닌가. 가더라도 동생같은 신대원들의 온전한 거울이 된 다음에 가라구.》

옹심깊은 그 진정앞에 안철동무는 더 아무말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안철동무가 돌격대를 대표하여 전국석탄공업일군대회에 참가하게 되였을 때 최순일대장은 품들여 만든 새 양복을 그에게 입혀주었다.

《김혁청년돌격대의 대표가 제일 멋있어야지. 이 구두는 내가 결혼식을 할 때 신었던거요. 이걸 신고 평양에 가라구.》

평양에서 찍은 독사진에서 새 양복차림에 사연깊은 밤색구두를 신은 자기의 옛 모습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며 안철동무는 축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사실 그 대회에는 대장동무가 참가하게 되어있었습니다. …》

돌격대에 데려온 부모없는 아이들의 어머니구실은 의례히 최순일동무의 안해 리성애녀성이 해야 했다. 그에게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은 돌배아들 광혁이네 소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 날이였다고 한다. 당시 돌격대에서 키우던 아이들중에 한 아이가 광혁이와 같은 학교여서 리성애녀성은 두 애에게 꼭같이 정성어린 점심밥을 꾸려주었다. 그런데 갱에서 아침식사를 하러 집에 들어오던 최순일동무가 떠여보고 두 아이를 세우더니 《광혁이 가방은 왜 더 무거워보이느냐?》하고 묻는것이였다.

학급반장인 광혁이에게는 동무들과 나누어먹으라고 간식을 더 싸주었다는 안해의 말을 듣자 최순일동무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두 아이의 가방을 바꾸어 메워주었다. 철없는 광혁이는 끝이 나서 빈 어깨바람으로 씽 하고 학교로 달려갔다. 막내아들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리성애녀성은 절로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날 밤 남편에 대한 야속함을 더놓는 안해를 최순일동무는 이렇게 꾸짖었다고 한다.

《당신은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 전에 돌격대의 어머니요. 제 자식보다 더 왼심을 써주어야 그애들이 당신을 친엄마로 생각하며 눈치밥을 먹지 않는거요.》

최순일동무는 돌격대원들의 엄격한 교원이기도 하였다. 탄부가 공부를 해선 뭘하겠는가고 학습장만 봐도 도리질하는 돌격대원들을 붙들어앉히고 최순일동무는 엄한 매까지 들면서 공부를 시켰다. 《머리에 든것이 없으면 사람구실을 못해.》하며 최순일동무는 토론문 하나 제손으로 만들줄 몰라 유치원 교양원처녀의 도움까지 받던 돌격대장 첫 시절의 가슴아픈 추억을 들려주군 했다. 청년동맹조직의 분공을 맡고 김혁청년돌격대의 선생님이 되였던 최녀교양원이 바로 최순일동무의 안해 리성애녀성이였다.

그 시절처럼 밤새워 먼저 학습을 하고난 최순일동무는 교원이 되여 돌격대원들의 학습을 지도하였고 그들모두를 개인의 리익이나 감정보다 당과 조국의 은혜에 대한 보답, 동지들과 집단을 위한 희생을 먼저 생각할줄 아는 참되고 대바른 청년들로 키우기 위해 애썼다.

돌격대에는 최순일동무가 직접 제작한 버럭분쇄기가 있다. 그들의 피땀으로 저탄장의 석탄산은 나날이 높아갔지만 최순일동무는 돌격대의 생활용연료로는 꼭 분쇄한 버럭을 석탄에 섞어 리용하도록 하였다.

《우린 탄부이지만 나라의 탄을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소.》

불타보게 달려지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두고 탄광사람들 누구나 감탄하였다. 김혁청년돌격대가 한가정, 한형제처럼 뭉쳐지고 그 돌격대에만 가면 말썽군도 혁신자가 되고 모범청년이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돌격대를 제 집같이 여기자면 뭐니뭐니해도 구들이 뜨뜻하고 배가 불러야 해.》

이것이 최순일대장이 늘 외우던 말이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버럭산우에 돌격대건물이 번듯하게 일떠섰고 삿갓봉중턱의 부업밭에서는 해마다 흐뭇한 작황이 펼쳐졌다. 결혼식을 하는 돌격대원들에게는 새살림준비가 다 갖추어진 새 집이 차례졌다.

심한 기침으로 신고하는 속에서도 돌격대원신혼부부의 집에 옷바람이 있을세라 자막대기로 높이까지 가늠해보며 친정우에 며거를 풀고루 펴주던 다심한 손길, 해산한 날 친정어머니보다 먼저 꿀과 미역을 안고 들어서던 그 정겨운 눈빛, 자기 자식의 학부형총회에는 가지 못해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꼭꼭 학교에도 들려보고 숙제장도 펼쳐보군 하던 사려깊은 그 모습이 돌격대원들의 추억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겪던 마지막나날에도 최순일동무는 돌격대의 부업기지를 더 훌륭하게 꾸리기 위해 찬비를 맞으며 현장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그가 동지들에게 남긴 마지막말은 자식들에 대한 부탁이 아니였다.

《부모없는 돌격대원들을 잘 돌봐주오. 4월달에 결혼식을 잘 차려주자고 했는데…》

최순일대장과 영결하던 날 돌격대의 나이 든 청년들도, 지휘관들까지도 아버지를 잃은 자식처럼 엉엉 소리내여 울었다고 한다.

최순일동무가 지난 27년간 청년돌격대를 이끌어 조국의 석탄산을 쌓아온 위훈도 크다. 그러나 우리 당이 더 귀중히 여기는것은 자신의 사랑과 정을 깡그리 다 바쳐 돌격대를 청년들의 정든 집, 한가정으로 만들어 수많은 청춘들을 당원으로, 초급일군으로, 참된 청년돌격대원으로 키운 공적이다.

로동당의 영웅청년돌격대장 최순일동무는 이렇듯 만단사연이 담겨진 가족사진첩을 새 세대 청년돌격대 지휘관들에게 귀중한 유산으로 남기고 떠나갔다.

돌격대의 첫 당원

최순일동무가 남긴 보물이 인 사업수첩의 갈피들에서 우리는 이런 꼭같은 글발을 자주 보게 되였다.

《당조직에 보고한다.》

돌격대의 중요한 사업들을 적은 페지에도, 한 돌격대원이 더놓은 마음속진정에 대한 자료와 청성석탄공업대학 학생인 대혁이와 고급중학교졸업을 앞둔 광혁이의 장래문제를 생각하던 글줄에도 이 여덟 글자가 또박또박 적혀있었다.

최순일동무는 김혁청년돌격대의 첫 당원이였다. 그는 입당할 때 다진 맹세대로 부모도 외면했던 불효자식에게 새생의 삶과 청춘을 안겨주고 조선로동당원으로까지 키워준 어머니당과 한생토록 운명의 피줄을 잇고 살았다. 그 피줄을 자신의 모든 사업과 생활우에, 정신과 육체우에 올려놓고 가장 신성하고 절대적인것으로 여기면서 살며 투쟁한 최순일동무야말로 조선로동당의 참된 아들, 훌륭한 전사였다.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는 김혁청년돌격대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시련의 시기였다. 당의 신임에 의하여 금성정치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최순일동무를 엄혹한 현실이 기다리고있었다. 돌격대를 떠나가버린 청년들도 있었고 아주 떡을 놓고 주저앉은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생산에 조성된 엄중한 난관도 식량난도 문제였지만 보다 심각한것은 돌격대원들의 마음이 시련의 폭풍앞에 흔들리고있는것이였다.

돌격대기발앞에 이윽토록 서있던 최순일동무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그러했듯 탄광초급당위원회를 찾아갔다. 그때 당조직에 최순일대장이 요구한것은 무엇이였던가.

《우리 돌격대에 당세포를 조직해주십시오.》

최순일동무는 바로 이런 당원이였다. 그는 운명의 숨줄과도 같은 당조직만 곁에 있으면 절해고도에서도 결코 두렵지도 외롭지도 않다는것을 자기의 길지 않은 인생체험을 통하여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한 사람이였다.

당조직에서는 시련의 극한점에서 김혁청년돌격대의 유일한 당원인 최순일대장이 제기한 요구를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곧 여러 갱들에서 우수한 젊은 당원들이 선발되였고 9명의 로동당원들로 돌격대의 첫 당세포가 조직되였다. 그 당세포의 첫 회의안건은 자체의 힘으로 돌격대의 숙소와 후방토대를 튼튼히 갖추기 위한 당원들의 과업이였다. 최순일대장을 키둥으로 당원들이 선봉대로 뭉쳤고 리성애녀성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젊은 안해들이 돌격대의 어머니가 되여 일떠섰다.

손끝에 피가 지도록 블로크를 찍고 삽질을 하면서 짐을 지었다. 잔등이 멍멍이나 벗겨지도록 거름짐을 지고 삿갓봉을 오르내리며 받을 일구고 씨를 뿌렸다. 이른새벽, 깊은 밤에도 당세포의 결정을 기어이 집행하기 위하여 걸사적으로 일하고 또 일하는 당원들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멸심멸백의 식량보다 더 큰 정신적힘을 안겨주었다.

전투의 나날에 언제 자고 무엇을 먹는지 본 사람이 없었다는 최순일동무에 대하여 추억하면서 돌격대의 첫 당세포 당원들인 오준석, 김덕병동무들과 리옥선녀성은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해하였다. 점점 심해지는 고질적인 신병을 근심하는 안해에게 최순일동무는 늘 《나야 당원이 아니요. 전쟁시기 화구를 막은 민청원의 가슴에서 피젖은 입당청원서가 나왔다질 않소.》하고 말하군 했다고 한다.

불사신같은 정신력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자가 된 김혁청년돌격대는 탄광적으로 손꼽히는 자력자강의 본보기단위로 솟구쳐올랐다. 간고하면서도 보람찬 투쟁의 나날에 9명의 당원들로 시작된 당세포에서 수십명의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원들로 성장하였다. 그들 대부분의 입당보증인은 최순일대장이였다.

어머니당에서는 한몸을 초불처럼 깡그리 태워 새 인생, 새 청춘의 하루하루를 빛내여가고있는 로동당원 최순일동무의 열렬한 충정과 깨끗한 당적량심, 고결한 헌신성을 높이 평가하여 선군시대공로자로 내세워주었으며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평남탄전 청년들의 귀감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 영웅청년돌격대장을 국가적인 대회들에 불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안겨주었다.

당의 사랑속에 최순일동무의 안해 리성애녀성은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들꽃아들 최광혁은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다.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참가하여 새 세대 청년핵심들과 함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 시각 쉰나이를 넘긴 평남탄전의 영웅청년돌격대장의 심장은 김혁청년돌격대기발을 들고 새생의 첫 발자욱을 떼던 27살 그 시절의 혈기로 세차게 높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로동당의 아들 최순일은 김혁청년돌격대장답게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당을 위해 깡그리 다 바치겠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최순일동무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였다. 가족들과 돌격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전투장을 떠나지 않는 그의 건강을 위해 탄광당조직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까지도 평남탄전의 본보기청년돌격대장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 탄광당조직에서 탄광병원의 의사까지 최순일동무에게 붙어주었으나 그의 록록치 않은 고집때문에 번번히 손을 들고 나앉군 하였다.

지난해 충정의 70일전투때 최순일동무는 심하게 앓으면서도 후방기지에 필요한 자재때문에 출장길에 올랐다. 의사가 막아나서자 고집스럽게 뿌리쳤다.

《나도 충정의 70일전투에 참가한 당원이 아니요.》

지난해 12월초 어느날 최순일동무는 안해와 함께 급히 탄광초급당위원회에 도착하라는 련락을 받게 되였다. 방에 들어선 그들에게 초급당일군은 이렇게 말하였다.

《방금 김혁청년돌격대 대장동무의 치료문제를 놓고 초급당집행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토의하고 진행된 집행위원회에서는 최순일동무가 오늘부터 료양치료를 받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순간 최순일동무는 눈앞이 확 흐려져 고개를 숙였다. 길에서 안해 리성애녀성의 흐느낌소리가 들려왔다. 남편의 병때문에 누구보다 속을 많이 태웠던 안해의 사랑도 대신할수 없는 큰 사랑, 한 당원의 병치료를 당결정으로 토의한 당조직의 따뜻한 손길이 영웅청년돌격대장의 병약한 육체에 생의 불꽃을 지펴주고있었다.

그 시각 료양지에서는 탄광초급당위원회와 도당위원회로부터 최순일동무의 병치료를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장수산려관지배인 정화숙동무와 종업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완공을 앞둔 돌격대의 새 살림집들, 당의 축복속에 신혼부부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소리가 금방 울려나올것만 같은 창문들을 이윽토록 바라보는 최순일동무에게 리정길초급당위원장은 다정히 말했다.

《당조직이 있고 돌격대당세포가 있지 않소. 걱정말고 치료를 잘 받소.》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 로력영웅, 선군시대공로자인 최순일동무의 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과 정으로 받아들키우듯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품을 들여 영웅청년돌격대장을 떠받들어주는 당조직이 있었다. 그만이 아니라 천성청년탄광의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의 걸음걸음 성장마다에, 그들의 생활과 위훈의 갈피마다에 어려있는 당의 손길을 우리는 위대과정에 깊이 느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당은 천군만마를 얻은듯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인사도 보내주시고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 그 유명한 리수복청년돌격대도 천성청년탄광에 있다.

우리는 탄광초급당위원회에서 최순일동무의 사업수첩들과 함께 그가 생을 마치는 마지막날까지 고심하며 그렸다는 돌격대의 전망설계도를 보게 되였다. 작업장숙소에서 최순일동무는 미처나오는 즐기침이 고통스러워 베개를 가슴에 고이고 앉아 설계도면을 완성했다고 한다. 그 설계에 기초한 전투계획을 꼼꼼히 적은 사업수첩의 페지에 그는 한자한자 또박또박 새겨넣었다.

《당조직에 보고한다.》

무척 힘겹게 적어넣은 흔적이 력력히 알리는 그 여덟 글자를 읽어보는 우리의 눈시울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것은 한생토록 당의 품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하늘같은 은혜에 목숨바쳐 보답할 일념으로 자신을 깡그리 불태운 한 참된 로동당원이 어머니당에 아뢰인 마지막목소리였다.

위대한 우리 당은 얼마나 참된 아들, 훌륭한 청년돌격대장을 키워냈는가.

영웅청년돌격대장이 남긴 마지막글발을 소중히 가슴에 안아보는 우리의 눈앞에는 저 멀리 백두산기슭의 건설장에서부터 분계연선의 농장벌에 이르기까지 청년돌격대가 있는 어데서나 청년들의 기발이 만리마시대의 영웅청년신화들을 창조하는 새찬불길이 되도록 뿌리가 되여주고 송풍기가 되여주고있는 수천수만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의 군상이 안겨오는것만 같았다. 그 무수한 청년돌격대기발들과 더불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시대에 어머니당과 청년돌격대의 각별한 혈연관계의 상징으로 온 나라를 감동시킨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거대한 붉은 기폭이 우리의 가슴을 꽉 채우며 뜨겁게, 뜨겁게 안겨들었다.

※ ※

지난 3월 17일, 청성렬사릉에서는 천성청년탄광 김혁청년돌격대장 최순일동무와의 영결식이 진행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 일군들과 함께 평남탄전의 수십명 청년돌격대장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새 세대 청년돌격대장들은 당에서 어이하여 자기들을 영웅청년돌격대장과의 영결식에 불러주었는지 똑똑히 알고있었다. 그때 그들의 귀전에는 최순일대장의 심장의 목소리가 쟁쟁히 들려오고있었다.

《어머니당만을 굳게 믿고 자기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라.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청춘시절이 그대들에게 차례지리라! 당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라. 그러면 인생의 가장 큰 영광과 영생이 그대들의 삶을 영원히 빛내여주리라!》

백두산청년강국의 제일 굳건한 기둥을 이루는 청년돌격대, 조선혁명의 첫 세대 청년투사들의 성스러운 이름과 더불어 빛나는 우리의 청년돌격대들은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며 강철의 전위대오로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다. 그 기발아래서 새 세대 김혁, 리수복들은 계속 태어나 백두산청년강국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것이며 위대한 만리마시대는 새라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로 조국청사를 더욱 눈부시게 장식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섭
본사기자 리경일

나라의 무도발전을 추동해가는 미더운 모습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권도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술의 한 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체육종목입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태권도성지관에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과 각 도(시)의 태권도선수단, 태권도학원 등 20여개 단체에서 선발된 600여명의 선수들이 태권도와 바둑을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를 진행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조선태권도위원회 일군인 함철국동무는 모든 선수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는 올해에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려는 불타는 일념을 안고 밤낮이 따로 없이 훈련하여 다진 기술들을 남김없이 발휘함으로써 좋은 경기장면들을 펼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서는 과학적인 훈련지도방법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기술을 한계단 끌어올린 단장 김효성동무를 비롯한 일군들과 감독들의 노력에 의해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태권도경기에서는 지난 시기에 3등의 자리에 머물러있던 자강도태권도선수단이 종합 1등을 쟁취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선수단 선수들의 태권도기술수준이 짧은 기간에 높아지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에 제8차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쟁취하여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또다시 떨친 선수들가운데는 자강도태권도선수단 선수도 있었다. 자기 도에서 금메달수상자가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도당책임일군들은 태권도선수단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때밀어주지 못한 자책감에 휩싸여있었다.

우리가 선수단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을 돌리였더라면 더 많은 금메달을 안아왔을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여 선수단의 훈련기지, 후방기지가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려지는 등 물질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나라의 정통무도발전을 위해 바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은 그대로 선수들의 태권도기술발전으로 이어졌고 오늘에는 태권도경기에서 종합 1등이라는 자랑찬 성과를 안아왔다. 단장 박철만동무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선수권대회준비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고 대회장으로 떠나는 남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던 도일군들의 모습을 잊을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자강도 일군들처럼 자기 도의 체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체육선수들의 기술향상에 품을 들일 때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더욱 세차게 몰아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수권대회 바둑경기를 통하여 우승의 어부는 감독의 역할에 중요하게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이번에 평양시태권도선수단이 바둑경기에서 종합 1등을 쟁취할수 있은것은 감독인 손남순동무의 노력과 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남, 녀 개인경기에서 순위권에 든 선수들에 대한 위재를 하는 과정에 우리는 함은경, 장리경선수들을 비롯한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의 여러 바둑선수들도 손남순동무가 키워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남자개인경기에서 순위권에 입선한 리진웅선수는 천성적으로 경기담이 부족한 자기를 위해 어려커지도록 심리훈련방법을 연구도입한 손남순감독의 노력이 있었기에 두뇌의 대결, 심리적대결과도 같은 바둑경기에서 주도권을 확고하게 틀어쥐고 안정된 경기를 할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10대의 나어린 바둑선수들을 출전시켜 순위권에 입선한 함경북도태권도선수단의 성과도 오랜 기간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많은 바둑선수들을 키워낸 감독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었다.

참으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컵과 상장, 메달을 수여받은 선수들의 뒤에는 체육사업을 조국의 존엄과 잇닿아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고 사심없는 노력을 기울인 일군들과 선수들의 기술발전을 위해 불같은 열정을 바쳐온 감독들이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비록 시상대우에서 볼수 없었지만 조국의 금메달이라는 거목을 자래우는 뿌리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새겨졌다.

성황리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전국무도선수권대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나라의 무도발전에 이바지할수 있는 귀중한 경험들을 안겨주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오늘의 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결심을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

강 효 심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중시한 문제

강서구역 보산협동농장 제6작업반 당세포에서

대중운동의 성과는 그 직접적 담당자인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된다. 하다면 정신력발동에서 중요한것은 무엇이겠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중운동의 생명은 그것이 대중자신의 운동으로 되게 하는데 있습니다.》

강서구역 보산협동농장 제6작업반 당세포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대중의 자각성문제를 매우 중시하고 원리적으로 풀어나갔다.

여기서 주목되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작업반원들에 대한 초급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의 확립이다.

작업반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들을 세우던 때의 일이다.

다른 결의목표들은 높이 세워졌지만 작업반축사를 큰 규모로 새롭게 개건보수하자는 의견에는 여러가지 주장들이 엇갈렸다.

한 일도 많은데 축사는 간단한 보수나 하고 넘어갈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기본을 이루었다.

이때 작업반장 서철학, 당세포위원장 문광복동무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함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높이에서 보고 대하였다.

그 어떤 형식을 차림것이 아니라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이것은 인민을 위한 복무관점의 기준이며 종당에는 대중운동의 목적과도 일치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세포위원장의 열렬한 토론는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이렇게 되여 축사개건보수가 결의목표의 중요한 조항으로 반영되였고 즉시 그 실천을 위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였다.

작업반장, 당세포위원장이 개건보수의 앞장에 섰다. 작업반장이 건설력량과 자재보장을 맡아나섰으며 당세포위원장은 세부적인 측면까지 관심하면서 내밀었다.

대중의 자각성은 어떤 일에서나 자기들의 리해관계와 일치될 때 더욱 높이 발휘된다.

모든것이 어려운 속에서도 자기들이 한가지라도 덕을 볼수 있는것을 헤놓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초급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되여 작업반원들도 두가 자각적으로 떨쳐나섰다.

이렇게 되여 짧은 기간에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는 검직한 축사가 새롭게 일떠섰고 새 품종의 짐짐승들도 마련되였다.

결국 축사개건보수는 작업반의 모든 초급일군들의 가슴마다에 복무관점의 새로운 기준을 정해준 좋은 계기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불치의 병으로 앓고있는 1분조의 농장원을 위해 귀한 약재를 찾아 방길을 걷고걷은 사실, 장마철피해로 못쓰게 된 작업반원의 집을 짧은 기간에 번듯하게 꾸려준 사실, 어떤 조건에서도 탁아소와 작업반원들의 집집마다 겨울용석탄을 정상적으로 보장한 사실을 비롯하여 초급일군들의 투철한 복무관점을 보여주는 사실들은 많다.

초급일군들의 그 마음, 그 진정은 그대로 대중의 자각성을 높여주는 밑불이 되여 높이 세운 결의목표수행에서 전례없는 혁신이 창조되게 하였다.

대중의 자각성을 높여주는데서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사업이다.

로동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대중의 자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말없는 정치사업이다.

당세포에서는 총화와 평가사업을 짜고들어 농장원들의 생산열의를 더한층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로력일평가를 공정성의 원칙에서 정확히 하는것과 함께 작업반원들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사회주의경쟁요강에 포함시켜 실적과 함께 평가하도록 하였다.

모범적인 농장원들에 한해서는 영예등록장에 등록하고 영예게시판에 사진과 함께 소개하는 등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결합시켜나갔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지켜 지난해 7명의 농장원들에게 2년 5개월분에 해당한 많은 량의 현물분배가 차례지게 하였다.

결과 작업반원들속에서 말은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생산열의도 높아지게 되였다.

이렇듯 대중의 비상히 높아진 자각성은 비약적성과를 안아왔다. 작업반은 알곡생산계획을 해마다 넘쳐 수행하였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면모를 일신하였다. 축사와 남새온실, 버섯재배장이 번듯하게 꾸려지고 정연한 후방공급체계가 확립되였다. 작업반은 모든 면에서 본보기단위로 되였고 영마저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였다.

대중의 정신력발동에서 그들의 자각성을 최대로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방법론있게 전개해나갈 때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이 이곳 당조직의 사업을 통하여 찾게 되는 결론이다.

본사기자 윤 명 철

설레이는 숲의 메아리—《우리 산림감독원》

강계시산림경영소 의진산림감독분소 산림감독원 조명일동무

강계시 신흥동에 가면 주민들로부터 《우리 산림감독원》이라고 정답게 불리우며 존경을 받는 산림감독원이 있다. 그가 바로 근 20년동안 해마다 수많은 나무를 심으며 560여정보의 산림을 조성한 강계시산림경영소 의진산림감독분소 산림감독원 조명일동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늘이고 온 나라를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한대의 나무라도 더 심고 아끼고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강계시에서도 외진 산골인 신흥동의 산판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벗겨진 나라의 산들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고 강계시의 어느 한 목장에서 초급청년동맹일군으로 일하다가 자진하여 산림감독원이 된 조명일동무였다.

나무나 풀보다 누런 흙빛이 더 짙게 안겨오는 산들을 말목이 시도록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그는 무거운 자책속에 잠겨있었다.

(내 눈에는 왜 저 산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메사롭게만 보였단 말인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조명일동무는 군사복무의 나날 조선인민군 중대사로청초급단체위원장대회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을 우러르며 영원히 조국을 받드는 길에 복무의 자욱만을 새겨갈 굳은 결심을 가다듬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1살, 앞날이 창창한 청년일군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있던 조명일동무는 그렇게 산림감독원의 첫시작을 떼였다.

산세와 기후, 토양의 특성에 맞게 나무모밭만들기와 그 비배관리를 해가며 나무종자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는 조명일동무의 광심과 땀은 참으로 성심하고 진한것이였다.

이른봄이면 남먼저 질좋은 거름을 지고 양묘장으로 나가고 여름이면 산림용반성원들과 함께 뙤약볕속에서 나무모밭김매기를 하고 그러다가도 산들을 오르내리면서 산세를 살피고 심어야 할 나무종자와 면적을 가늠하기도 하느라 조명일동무의 옷은 늘 젖어있었다. 하지만 해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들아들한 나무잎새들을 볼 때면 그의 얼굴에는 희열이 넘치군 하였다.

이깔나무종자를 구하기 위해 멀리 함흥땅을 몇차례씩 다녀오기도 하고 비물에 흘러내리는 큰돌에 짤려 부러진 애어린 잣나무모 하나를 놓고도 가슴아파하는 그를 보며 찬사를 금치 못해하는 이곳 늙은이들에게 조명일동무는 이렇게 입버릇처럼 되뇌이군 하였다.

《쓸만 한 나무가 별반 없는 산을 지켜서야 무슨 산림감독원이겠습니까. 나무가 있고서야 산림감독원도 필요한거지요.》

그가 매 산판마다 특성에 맞게 산골짜기로, 산등판으로 옮기며 꾸려놓은 양묘장만 해도 그 몇개인지 모른다.

그 과정에 석회암지대인데다가 마을에서 25리 떨어져있고 해발 1 000여m나 되는 바람세찬 심이점산등판에만은 나무를 심어 자래울수 없다고 하던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등판에 수십정보의 이깔나무림도 조성한 조명일동무였다.

사실 그가 산림감독원사업을 시작할 당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히빈것은 식량난으로 고충을 겪으며 마을사람들이 한때기한 때기 일군 비탈밭들에 나무를 심어야 하는 괴로움이였다. 때로는 뭇사람들에게서까지 몰리혜를 당해야 하는 참기 힘든 일도 있었다. 하지만 한생을 푸른 숲에 바쳐가려는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야말았다.

어느날 하루종일 산을 돌아보다가 밤늦게야 돌아온 조명일동무는 밥상에 마주앉으며 어느때없이 안해의 허갈파진 손을 마주잡았다.

쥐어보면 한줌인 그 손에 얼마나 많은 일감이 쌓여있었던가. 낮에는 양묘장에서 거름지게를 지고 땀을 흘리고 저녁이면 남편과 애어린 자식의 그릇에 죽 한줌가락이라도 더 떠놓아주자고 애써온 안해였다.

그런 안해에게 집에 얼마 안되는 식량마저 마을사람들을 위해 쓰자고 말하자니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여보, 당신이 이 산골에 나를 따라와 고생이 많소. 당신도 대학동창생들처럼 하얀 위생복을 입고 환자치료에 전심했다면 아마 이제는 큰 병원의 과장쯤은 되였을텐데…》

어쩔은 눈길을 천천히 떨구며 말끝을 얼버무리는 남편을 이윽토록 바라보던 안해가 말하였다.

《나도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있어요. 너나없이 고충을 겪는 때가 아니예요. 후날 마을사람들과 함께 오늘을 즐겁게 추억할 날이 꼭 있겠지요.》

이어 안해는 웃방으로 들어가 강냉이자루를 들고나왔다.

《마을사람들의 식량에 엄마간보탬이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명일동무와 안해는 시련의 나날을 자기 가정 하나만이 아닌 온 마을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며 조국의 산에 푸른 숲을 가꾸어갔다.

조명일동무에게는 여러권의 부피두툼한 산림복구일지가 있다. 거기에는 산림감독원으로 일해오는 나날에 나무를 심은 날자와 위치, 면적, 나무그루수, 수종 등이 상세히 기록되여있다. 그런가하면 매 주민들이 비탈밭에 심은 나무의 그루수와 수종을 확인하는 수표도 적혀져있다. 그 산림복구일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해마다 자기 량심을 비추어보기도 했다.

오늘 그 복구일지를 가리켜 사람들은 《애국일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두해전 9월 어느날 조명일동무의 집으로 여문 잣송이를 안고 들어서는 로인이 있었다.

《여보게, 이 잣송이가 바로 10여년전에 자네가 심은 나무에서 딴걸세. 그 비탈밭에 심을 때에는 열매가 달리는것을 생전에 본것같지 못하더니 이렇게 알차게 달리지 않았겠나. 그때 감독원을 욕되게 한 이 늙은이를 용서하게.》

그날 로인에게 이제부터는 열매를 할아버지가 거두어들이라고 말하는 조명일동무의 눈가에는 뜨거운것이 흘러내렸다.

바로 그 눈물은 자기 대에는 덕을 보지 못한다 하여도 후대들과 조국의 래일을 위해 한생을 바쳐가려는 참다운 인생관을 지닌 사람들만이 흘릴수 있는 고귀한 애국의 결정체가 아니랴.

조명일동무가 푸른 숲을 가꾸어온 나날은 그렇게 뜨거운 인정미와 실천적모범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온 나날이기도 했다.

이제는 온 신흥동의 골안이 푸른 숲으로 뒤덮이였지만 조국에 바쳐가는 그의 애국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창성이깔나무와 아카시아, 가래나무 등 수십만그루의 나무모를 자래워 강계시는 물론 자성군을 비롯한 여러 군들의 산림복구전투장들에도 보내주었다.

그리고 지금 과학기술보급실과 나무모온실, 종합축사, 자연호흡식관수체계 등을 훌륭히 갖춘 현대적인 양묘장건설을 자진하여 맡아나섰다. 그 양묘장건설에 이곳 주민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다.

근 20년세월 순결한 구슬땀을 바쳐온 산림감독원 조명일동무,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산림복구구상을 그와 같이 애국헌신의 한마음으로 받들어간다면 멀지 않은 앞날에 조국산천이 푸른 숲으로 뒤덮일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을 인민들은 자랑하며 애국자로 떠받드는것이다.

본사기자 신 현 규

로동생활속에 빛나는 값높은 삶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하는 일은 평범해도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이 있다. 그 어떤 평에나 대가도 바람이 없이 맡은 혁명초소를 한생토록 성실히 지켜가고있는 대동강구역원림사업소 로동자 김영숙, 강남군 문암농장 농장원 채수관동무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있다.

수도의 아름다움을 가꾸며 40여년

그림같이 아름다운 대동강반의 풍치에는 대동강구역원림사업소 로동자 김영숙동무의 헌신의 자욱도 깃들어있다.

자강땅의 평범한 가정에서 나서자란 그가 수도 평양에서 새살림을 펴고 원림부문에서 일하게 되였던 40여년전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하였다.

《평양시를 웅장화려한 혁명의 수도로, 록음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뜻과 구상을 높이 받들어 맡은 일을 잘하기 바란다.》

그 당부를 심장에 새기고 그는 구역안의 거리와 마을들을 록음방초 우거진 아름다운 선경으로 꾸리기 위해 참으로 보석같은 애국의 자욱을 수놓아왔다.

그는 해마다 3t이상의 질좋은 부식토와 거름을 생산하여 화초밭,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이였으며 10여종에 1만여포기의 꽃을 정성껏 키워 혁명의 수도 평양을 더욱 훌륭히 꾸리는데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수십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충정을 안고 금수산태양궁전을 백화만발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로 훌륭히 꾸리는데 수천포기의 화초들과 수백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보내주었다. 그리고 수십명의 원예사들과 유능한 재배공들도 키워냄으로써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에 직극 이바지하였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오늘도 김영숙동무는 구역안의 거리와 마을, 공원들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사업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며 성실한 근로의 정신, 애국충정의 넋을 자식들의 가슴에도 새겨주고있다.

농장의 보배로 불리우는 애국농민

강남군 문암농장 농장원 채수관동무는 《농장의 보배》, 《농기계박사》로 불리우는 애국농민이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새해를 맞이한 채수관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나라를 위해 벌로 큰일을 해놓지 못하고 년로보장을 받을 나이에 이르렀던것이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맞는 새해여서인지 그의 마음은 남덩이를 안은듯 무거웠다.

피는꽃의 12월 그는 농사일때문에 그토록 마음쓰시며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불편하신 몸으로 로전길을 걷고 걸으시던 어버이장군님의 심혈과 로고를 가슴저미게 돌이켜보며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애국의 맹세를 다지였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었다고 어떻게 로전을 쉬이 떠날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마음다잡은 채수관동무는 새로운 결심을 품고 더욱 분발해나섰다.

그해 1월 수십정의 소농기구들을 만들어 새해농사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해준 그는 지난 시기 어려커지 농기계들을 척척 다루어내던 솜씨로 소달구지들도 그쯘히 수리해주어 거름실어내기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다음해에는 논밭갈이에 절실히 필요한 보습날들도 제힘으로 만들어내였으며 2014년에는 뜨락또르련결농기계들의 정상가동을 위해 많은 농기계부분품들도 개조하였다.

이렇게 지난 5년동안 5종에 80여대에 달하는 농기계들을 제작 및 개조, 수리함으로써 농장의 영농사업에 적극 이바지한 채수관동무는 오늘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섰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장 정 철

우리 나라 외무성과 알제리 외무 및 국제협조성사이의 제1차 정치협상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외무 및 국제협조성사이의 제1차 정치협상회의가 24일 알제리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우리측에서 알제리를 방문하고있는 신흥철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상대측에서 하싼 라메히총서기를 비롯한 외무 및 국제협조성의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신흥철부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두 나라사이의 쌍무관계를 언제나 중시하시며 알제리정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두 나라가 정세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쌍무관계를 확대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하싼 라메히 외무 및 국제협조성 총서기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각하께서 1958년 알제리림시정부가 수립되자 제일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도록 하시고 알제리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시였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5년 알제리를 공식방문하시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탁월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한 모든 기적적인 성과들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알제리정부와 인민은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의 통일로선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신흥철부상은 람탄 라맘라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국무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은 이번에 진행된 제1차 정치협상회의가 쌍무관계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레바논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1일 레바논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쉘 아운 레바논대통령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장명호대사가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모든 분야에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해나가기를 축원한다고 하면서 레바논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것이다고 강조하였다.

꾸바에 가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출발

주영길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이 꾸바에서 진행되는 세계직업련맹 위원장리사회 회의에 참가하며 꾸바를 방문하기 위해 27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동선 직총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해루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뜰롱고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송하였다.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이 떠나갔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카나다조선인련합회대표단이 27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하는 모임 진행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고 조국의 영예를 떨친 선수들과 감독들을 축하하는 모임이 27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관계부문, 청년동맹일군들, 선수, 감독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2017년 세계청소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선수, 감독들에게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되였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과 청소년학생들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조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친 미더운 력기선수들과 감독들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금메달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의지를 안고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이들의 자랑찬 경기성과는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모든 체육인들과 감독들이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은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우리 식의 위력한 경기전법으로 국제경기들마다에서 련전련승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청년학생들은 함흥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린 우리의 미더운 력기선수들처럼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세계를 놀랬다놓는 기적과 위훈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2.8비날론련합기업소체육단 기술부단장 서명덕, 4.25체육단 선수 김일경이 결의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향하여 힘있게 떠밀어주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준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때문이라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배우의 넋과 기상을 지닌 사상정신적, 육체기술적강자로 튼튼히 준비하며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영웅조선의 새로운 체육신화를 끊임없이 창조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한식솔입니다

제가 펜을 든것은 저를 위해 바친 한 당일군의 아름다운 소행들중에서 한두가지 사실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저의 집에 한 녀성이 찾아왔습니다. 웃음을 지으며 방에 들어선 그는 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방바닥을 짚어보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그는 용진군당위원회 부원 정현숙동무였습니다.

다음날 밤에서 불전기재의 발동소리가 들려와 문을 열어보니 아니 글쎄 전날 우리 집을 찾았던 군당부원이 세멘트와 모래 등을 싣고온것이였습니다.

그는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며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것은 응당한 도리라고 하면서 일손을 잡는것이였습니다. 이윽고 군당위원회일군들도 찾아왔습니다.

저의 집도 보수해주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가지 생활필수품들과 갖가지 보약제들을 마련해가지고 찾아온 그의 소행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 나날 그와 우리는 사랑과 정으로 이어진 한식솔이 되였습니다.

3년전 그는 저의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하던 날 흙을 담은 자그마한 주머니를 아들의 배낭에 넣어주면서 아버지처럼 고향을 잊지 말고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한 당일군의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는 그 나날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이런 일군을 키운 우리 당은 위대한 어머니품입니다.

옹진군 읍 100인민반 특류영예군인 한 정 철

재집권을 노린 시정배들의 불순한 광대극

남조선에는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 분다.》는 말이 있다. 추악한 권력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동족을 겨고드는 《안보위기》소동에 광분하며 진보민주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대는 괴뢰보수패당을 야유조소하는 말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요즘 남조선에서는 또다시 《안보위기》소동이 요란하게 벌어지고있다. 그 장본인은 두말할것없이 보수잔당들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패거리들이다. 지금 이자들은 《안보》문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불리한 선거판을 뒤집어엎고 재집권야망을 실현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5개 정당후보들간의 TV토론회가 열리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무차별적인 란타전》, 《토론과 론쟁이 아닌 말꼬리잡기식의 수준낮은 말싸움》으로 평한 이 토론회에서 기본화제는 《주적》문제였다. 이날 홍준표, 류승민을 비롯한 보수정당후보들은 야당후보들의 《주적》관을 캐어묻고 그들을 《안보불안세력》, 《종북좌파》로 몰아대며 피대를 돋구었다. 한편 이자들은 자기들을 《안보수호세력》으로 광고하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어보려고 발광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벌리고있는 《안보위기》소동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배들의 광대극이다.

선거때마다 《안보위기》소동을 벌리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진보민주세력을 《안보불안세력》,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지난 2012년의 《대통령》선거때만 보아도 괴뢰보수패거리들과 극우언론들은 《북방한계선》문제를 운운하면서 야당세력을 《령토주권포기세력》, 《안보불안세력》으로 몰아댔다. 남조선에서 썩어빠진 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진보정치를 실현할데 대한 각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저들의 《정권》연장기도가 파탄될 국면이 조성되자 다급해난 괴뢰패당이 고질적인 악습그대로 《안보위기》소동을 벌리며 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보수층의 지지표를 긁어모으려고 획책한것이다.

몇해전의 지방자치제선거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괴뢰패당은 《북의 어뢰공격》이니 뭐니 하고 《천안》호침몰사건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키면서 《안보위기》소동에 광분하였다. 그러면서 《색깔론》으로 진보정당소속 후보들에게 《친북좌파》의 딱지를 붙이려고 미쳐날뛰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신들까지도 괴뢰보수패당이 지방자치제선거를 계기로 《천안》호침몰사건을 악용하여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렸다고 비난하였다.

괴뢰보수패당이 찍하면 벌려놓고있는 《안보위기》소동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략책동으로서 절대로 통할수 없다.

괴뢰들이 《안보위기》소동으로 인민들을 기만하고 제 리속을 차리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 낡은 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안보위기》소동을 벌리며 《색깔론》을 악국의 감초처럼 써먹는 괴뢰보수패당의 발악적망동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

굳이 남조선의 《안보위기》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을 초래한것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과 그에 적극 추종해온 괴뢰보수패당의 동족대결정책이다. 반역패당이 마치도 《북의 위협과 도발》때문에 《안보위기》가 조성되는듯이 떠드는것은 언어도단이다.

오늘의 현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지금 조선반도에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첨예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들이 《북핵위협》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어대며 그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우리에 대한 핵위협공갈에 미쳐날뛰고있기때문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을 비롯한 수많은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하여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로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였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동시에 집결시키면서 북침선제타격흉계를 실현하려고 미친듯이 혈안비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 《대북선제타격》설과 《4월전쟁》설이 나돌면서 극도의 불안과 전쟁공포증이 만연되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남조선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장본인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이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생존터전에 외세의 핵전쟁장비들을 아무 거리낌없이 끌어들이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불장난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아 온 남조선땅을 통채로 북침을 위한 핵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겨레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짙게 몰아온 범죄자들이 그 무슨 《북핵위협》을 운운하고 《안보위기》나발을 불어대는것이야말로 도적이 도적이야 하는 격의 파렴치한 망동이다.

괴뢰보수패당이 떠벌이고있는 《안보위기》는 다름아닌 미국상전의 무분별한 북침핵전쟁책동에 적극 공조해온 매국반역정책이 초래한 위기이며 불안이다.

진실은 그 무엇으로도 가리우지 못한다.

반역패당이 《안보위기》니 뭐니 하며 제아무리 반공화국모략소동에 피눈이 되여도 내외여론을 오도할수 없으며 저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역적들이 모략적인 《안보위기》소동으로 민심을 기만우롱하며 재집권야망을 실현하려고 발악해도 이미 파멸의 수렁속에 깊이 빠져든 저들의 운명을 절대로 건질수 없다.

괴뢰보수패당이 《안보위기》에 명줄을 걸고있는 이상 남조선에서 불안이 언제 가도 가셔질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패당이 있는한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념원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생존권조차 유지하기 어렵다는것을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남조선에서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길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열을 올리는 괴뢰보수패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모조리 처넣는데 있다.

그런데도 지금 남조선의 일부 야당세력들은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북침전쟁광기로 조선반도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처한 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운운하며 보수의 흉내를 내고있다. 이것은 대세의 흐름과 민심도 알지 못하고 《안보위기》소동으로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본 보수패당의 파거를 망각한 머저리짓으로서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층의 실망만을 자아낼뿐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일부 야당후보들이 말로는 《정화통일》을 운운하면서도 보수패당의 《색깔론》공세에 편승하여 그 무슨 《주적》에 대해 떠들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부정하는 반역행위라고 비난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천명된바와 같이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보수패당이든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불순하기 그지없는 《안보위기》소동에 매달리며 민심에 역행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추악한 정치시정배들을 남조선인민들은 단호히 심판하게 될것이다.

허 영 민

어리석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차례질것은 개죽음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

최근 괴뢰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역도가 분별을 잃고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려대고있다.

며칠전 역도는 당장 목이 나떨어지게 된 주제에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이 인민군창건일에 즈음하여 6차핵시험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수 있다.》느니, 《북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철통같은 군사적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느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대결나발을 불어대면서 비린청을 돋구었다.

그런가하면 《북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있다.》느니, 《주변국과의 외교적노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나갈것》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수작도 늘어놓았다.

행신 록갑한다고 26일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군종합동타격시위에 질겁하여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부랴부랴 벌려놓은 그 무슨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데 낯짝을 드러내고 졸개를 내세워 《위용과시》니, 《강력한 응징, 격멸능력을 시현했다.》느니 하며 허세를 부려댔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 팔삭둥이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상전인 미국마저도 급속히 고도화되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혼비백산하여 자기의 전략자산을 다 들이밀며 허둥대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있는 때에 한갖 괴뢰들 따위가 《응징》이니 뭐니 하며 줄망스럽게 들까불어대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가란은 접기가 많은자일수록 위세를 부린다고 담도 없는 황교안역도가 제법 일을 칠것처럼 알락한 혀바닥을 마구 놀려대는것이다.

군대들도 먹어보지 못하고 군사의 《군》자도 모르는 무지한 놈이 입만 벌리면 그 무슨 《강력한 응징》이니, 《대비태세》니 하고 주절대는 쌀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송장 파먹은 까욱소리뿐이라고 불똥이리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앙심이 구정물처럼 팍 들어찬 역도의 주둥이에서 슴통이 끊어질 시각이 닥쳐왔다고 하여 다른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황교안역도로 말하면 청와대악녀 박근혜의 집권기간 괴뢰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자리를 타고앉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리석기내란음모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면서 역도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미쳐날뛴 국우악질보수분자이다.

천하역적 박근혜년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다음 《대통령권한대행》감투를 뒤집어쓰자 《북이 한력위기를 틈타 도발할수 있다.》느니, 《즉각 대응태세유지》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악담을 토해낸 대결광신자가 바로 황교안역도이다.

4월에 들어와서만도 며칠이 멀다하게 졸개들을 모아놓고 《핵시험 등 북의 추가도발가능성이 농후하다.》느니, 《북이 전략적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하겠다.》느니 하는 망발을 그칠새없이 늘어놓으며 극도의 안보위기를 고취해대고있다.

황교안은 국악무도한 망발을 제쳐놓는것으로써 미국의 꼭두각시, 대결에 광분해온 박근혜년의 수구잔당으로서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괴뢰들이 지금 입만 벌리면 낯 뜨거운줄 모르고 《한미동맹》이니, 《긴밀한 협의》니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군사주권도 없는 한갖 미국의 전쟁노예, 하수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문제를 놓고 주변국들과 모의판을 벌리면서 유독 괴뢰들만 쏙 빼놓은것은 주구의 카렌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황교안역도가 《북의 추가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는 괴뢰보수잔당들의 불안감의 발로이며 《대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를 더욱 고취하여 보수세력을 규합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역도야말로 기생오라비상통그대로 미국상전과 보수패당의 밑씻개노릇밖에 더 할것이 없는 인간추물이다.

마가을의 가랑잎신세가 된 황교안역도가 아무리 피대를 돋구며 대결타령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공포에 질린자의 아부재기에 불과하며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 괴뢰들이 등쌔 부리진 승냥이신세가 된 미국상전을 믿고 감히 무분별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멸적의 불소나기속에서 시체는 고사하고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어리석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차례질것은 처참한 개죽음뿐이라는것을 역도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황교안은 말로가 더 비참해지지 않으려거든 더러운 주둥이를 다물고 박근혜년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주체106(2017)년 4월 27일
평 양

민심을 우롱하는 특별대우놀음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버림을 받은 박근혜역도가 감옥에서 특별대우를 받고있는 사실이 알려져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역도는 잠자고 감방에 들어갈 때 신 방이 더럽다느니, 도배를 하라느니 하며 앙탈을 부리였다.

문제는 서울구치소것들이 박근혜의 요구대로 감방의 도배를 다시 하고 시설들을 정비해주었을뿐아니라 그동안 역도를 불법적으로 교도관당직실에서 지내게 한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자들은 박근혜에게 일반범죄자들의 방보다 두배나 큰 독감방을 배정하고 개인변호사가 임의의 시각에 드나들면서 역도와 공공이를 할수 있도록 면담실을 별도로 마련해주었으며 이미 설치되였던 감시용촬영기도 가리워놓았다.

이 사실에 접한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는 법우에 군림하면 버릇을 못 고쳤다.》라고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터네트에는 《범죄자가 천만 더운밥 가릴 처지인가.》, 《아직도 〈대통령〉인줄 아는가.》라고 비난하고 조소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실리고있다. 야당세력들도 《기가 막힌다.》고 하면서 괴뢰사법당국을 강하게 비난해나서고있다.

바빠맞은 서울구치소패거리들은 《도배작업은 구치소자체의 판단으로 진행》한것이라느니, 《특혜조치는 아니》라느니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자들은 박근혜역도에 대한 특별대우놀음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일반죄수들도 교도관당직실에서 재운다.》느니, 《취침을 하기에는 교도관당직실보다 감방이 더 낫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나발까지 줴쳐댔다.

박근혜역도에 대한 서울구치소측의 특별대우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있는 보수패거리들의 사촉에 따른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괴뢰보수패당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박근혜역도에 대해 벌써부터 《사면》설을 떠들어대는가 하면 괴뢰검찰은 《세월》호침몰당시 역도의 7시간행적을 비롯한 주요혐의들을 반영하지 않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역도의 죄악을 가려워주고 여론을 기만하려고 획책하고있다. 괴뢰보수패당이 감옥에 갇힌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주는 등 역도를 극구 비호하는것은 지난 4년간 역도년의 무지무도한 악정의 희생물이 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을 당해온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우롱이다.

박근혜역도는 특혜가 아니라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할 특급범죄자, 만고역적이다.

괴뢰역도의 반인민적이고 무능무능한 정책으로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큰 재난속에 시달려왔는가.

《유신》독재부활을 꿈꾸며 거짓과 기만, 불법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공포정치, 폭압정치로 남조선을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깡그리 유린말살된 몸서리치는 암흑사회, 경제와 민생이 파국에 처하고 대형참사와 범죄, 말세기적인 풍조가 판을 치는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주범이 바로 박근혜이다.

역도가 《청렴》의 간판밑에 제애비를 릉가하는 수법으로 재벌들을 강박하여 숱한 돈을 긁어낸것은 부정부패의 왕초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해 날뛰면서 도깨비무당의 추동에 따라 북남관계의 마지막숨통인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한 괴뢰역도의 망동은 온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냈다.

박근혜역도가 저지른 죄악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다시는 남조선에서 박근혜와 같은 독사가 뻐여져나와 사회와 민중에게 만가지 해악을 끼치는 비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역도년에게 가장 무자비하고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가 《죄값을 똑바로 치르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만하게 놀아대는 박근혜를 규탄하고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은 당연하다.

역도를 비호하는 괴뢰사법당국이 문제이다. 감옥에 처박혀 숨쉬는 미이라신세가 된 역도의 눈치를 보며 온갖 특혜를 제공하고 그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저들의 죄악을 감추려고 오그랑수를 쓰는것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격앙시키는 얼간망둥이들만이 할수 있는 추태이다.

괴뢰보수패당이 박근혜역도에게 살구멍을 열어주려고 아무리 발버둥질해도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는 응당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을 징벌하고 모든 적폐들을 청산하여 이 땅에 민중이 주인된 민주의 새세상을 세우자.》고 웨치면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천하악녀인 박근혜역도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는것은 거역할수 없는 민심의 명령이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이다.

만일 괴뢰보수패당이 이것을 외면하고 산송장인 박근혜역도를 계속 비호하려든다면 역도와 함께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혀 파멸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장 임 향

미제침략군이 《싸드》장비들을 기습배비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제침략군이 괴뢰패당과 작당하여 성주골프장에 《싸드》장비들을 기습적으로 끌어들이였다.

《싸드》배치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항의기세가 두려워 미제침략군은 25일 야밤에 도적고양이처럼 부산과 오산, 왜관에 분산배치해두었던 《싸드》장비들을 배치지로 출발시켰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당국은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한 고리로 견인차, 호송차, 유조차들과 8 000여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X-밴드》레이다와 교전통제소, 6기의 이동식발사대를 비롯한 《싸드》의 대부분 장비들을 26일 새벽까지 배치지인 성주골프장안으로 들이밀었다.

《싸드》를 배치하기 위한 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비들을 서둘러 끌어들인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언론들은 《미군이 항공기와 배를 리용하여 전방위로 싸드를 들여온데 이어 다음기 정부구성에 앞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선거결과에 따라 나타날 반대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한미당국의 계획에 따른것으로 보인다.》고 평하였다.

미제침략군의 강제적인 《싸드》장비반입에 격분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과 원불교인들이 항의투쟁을 벌렸다.

투쟁참가자들은 골프장입구의 마을회관앞에서 길을 막고 폭압에 미쳐날뛰던 경찰의 폭행으로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지만 미제의 침략책동을 규탄하는 함성을 터치며 격렬히 맞서 싸웠다.

남 조 선 원 정 단 이
영국에서 반미, 평화투쟁 전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각계층으로 구성된 평화원정단이 19일 영국 런던의 트라팔가광장에서 반미, 평화투쟁을 전개하였다.

원정단은 《핵전쟁연습 중단!》, 《정화협정 체결!》, 《싸드 배치 중단!》, 《4.19정신 계승! 황교안내각 총사퇴!》 등의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벌렸다.

이들의 시위를 지켜본 많은 외국인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고무하였다.

한 영국인은 《미국은 나쁜 국가다. 남북을 갈라놓은 주범이며 조선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대한 간섭을 멈추어야 한다.》고 하면서 영국이 왜 미국을 지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그는 남북은 력사적으로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의 피줄을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온 원정단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시위가 끝나자 원정단은 영국주재 미국대사관앞에서 진행되는 이 나라 반전단체의 집회에 참가하여 《트럼프에게 수치가 있으라.》, 《전쟁소동을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전횡을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 보 문 발 표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가 26일 공보문을 발표하였다.

공보문은 지난 3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긴급의제로 토의할데 대한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의 제소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외면된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것은 리사회가 자기의 사명도, 국제사회의 신뢰도 다 줴버리고 일개 국가의 정치적도구로 전락되였음을 다시한번 스스로 보여주는것으로 된다고 까밝혔다.

공보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기간 안보리사회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한 정정당당한 자위적조치들에 대해서는 비법적인 《제재결의》채택 등으로 전건이 문제시하여왔다.

미국이 저들의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이중적인 자대에 따라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자주권행사가 《불법》으로, 자위적조치가 《도발》로 매도되고 조선반도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이 공공연히 묵인되고있는것이 오늘 안보리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에 완전히 놀아나고있는 안보리사회의 불공정성, 이중기준행위는 우리가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백방으로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준다.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우리를 힘으로 어쩌보겠다고 해항공모함타격단들을 줄줄이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이고있지만 미국의 위협과 공갈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미국이 대결을 바란다면 끝까지 해보자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에는 지상, 해상, 수중, 공중기동을 동반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방식들이 있으며 미국이 걸어오는 도발의 종류와 수위에 맞는 우리 식의 강경대응은 그 즉시에 따라서게 될것이다.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힘으로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애호적인 사회주의국가로서 평화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막강한 핵을 보유한 이상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주저없이 맞대응할것이며 미제와의 관가리결전에서 반드시 승리자가 될것이다.

로 씨 야 외 무 성
조선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방안은 파국적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미국에 경고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26일 모스크바국제안전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조선반도에서의 힘에 의한 방안은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미국에 경고하였다.

그는 《북조선위협》을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적극화하고있는 군사적활동으로 인해 조선반도정세는 악화되고 심각한 불안을 산생시키고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강행하고있는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는 조선반도에서 극도의 불안정요소라고 하면서 그는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힘에 의한 방안은 전체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 파국적후과를 초래할것이라는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외무성 부상 가필로브는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씨야는 28일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진행될 대조선문제토의시 미국의 군사연습을 용납할수 없다는 립장을 천명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미국이 추종세력들과 함께 진행하는 군사연습으로 인해 지역의 전반적정치군사정세가 격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조선의 불신을 산생시키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재만으로는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수많은 제재조치들이 이미 취해졌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로씨야는 조선반도문제의 정치외교적해결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외무성 부상 람포브는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타격단이 조선반도로 향하고있는것과 관련한 질문에 지역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로씨야는 미국이 론리적으로 행동할것을 다시한번 호소한다고 대답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횡포무도한 침략행위를 놓고 서방언론들이 나름대로의 분석들을 가하고있는데 거기에는 스쳐지나보낼수 없는것이 있다. 수리아에 대한 타격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는것이다. 백악관대변인이라는자는 우리를 빗대고 그것이 수리아뿐아니라 전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신호로 된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아마 서방언론들은 우리가 그 무슨 변화를 보일것이라고 판단하였을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조선에 자극으로 될것이라는 어론이 나돌고있는 때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수리아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신 소식이 보도된 사실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미국의 VOA방송, 신문 《뉴욕 타임스》 등 보도들들은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축전에서 수리아집권당이 내외적대세력의 도전과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하고있다고 높이 평가하신것은 트럼프행정부에 정면으로 반격을 가한것이며 미국에 단호히 맞서나갈 의지를 표명한것이라고 전하였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화학무기공격의 근원지》인 수리아비행장을 목표로 한 군사적공격을 명령하였다느니, 미국이 수리아에서 살륙과 류혈을 끝장내고 온갖 테로행위를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할것이라느니 뭐니 하고 떡기를 부릴 때에 그들은 이에 대해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수리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공격은 두말할것없이 주권국가에 가해진 날강도적인 자주권침해행위이다.

다른 나라 령토에 폭격과 포격을 가하는것은 명백히 침략행위로 된다. 침략의 정의에 관한 런던조약에 그렇게 규정되여있다. 국제법의 원칙에도 다른 나라 령토나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명백한 전쟁범죄행위로 된다고 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한 행동》, 《대담한 작전》이라고 상전을 추어올리는 얼간이들의 아부굴종에 미국은 더욱 기고만장해하고있다. 승냥이본성을 드러낸 미국은 《칼빈손》호핵항공모함을 비롯한 함선집단을 조선반도수역에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해보려고 날뛰고있다.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함부로 유린하는 란폭한 침해자, 침략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더욱 드러나고있다.

하다면 트럼프행정부가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높이는것으로써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으며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허세에 불과한것이라는것이 드러났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칼빈손》호항공모함전단의 조선반도에로의 급파는 이전 행정부때처럼 뽀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데로부터 창피를 모면하기 위한 무력시위에 불과하다고 야유하였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는 트럼프행정부가 명확한 전략도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의 위협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세계적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미국의 《전략없는 전략》이 혼돈만을 야기시키고있으며 이것은 트럼프의 모험주의정책이 미국내에서 반발을 자아내고있는데 대한 증거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가 미국에 자중자숙하라고 충고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국이 원하는 모든 전쟁방식에 다 대응해줄것이라는데 대해 천명하였다. 그것이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세계는 우리가 뜻깊은 태양절에 거행한 열병식에서 목격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오금이 저렸을것이다.

미국이 수리아에 순항미싸일을 수십기 날리고 그 누구를 놀래웠을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쯤한 일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이 물덤벙술덤벙했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것이다.

최근 한 미국회 하원 의원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는 등 큰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일을 망치면 수백만명이 죽을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클린톤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던 페리는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선제공격계획은 수리아작전과는 다를것이다, 1막은 즐거운 일로 될지도 모르겠지만 2막은 아주 우려할만 한폭으로 전개될것이다, 3막은 재앙적인것으로 될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트럼프행정부가 창피를 면하려면 리성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오바마패당은 《전략적인내》정책을 내흔들면서 제재와 암살의 방법으로 우리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다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였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갖출것은 다 갖추게 만들었다. 트럼프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구태의연한 방식에 매여달리는것은 우리에 대해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망동으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려명거리건설을 짧은 기일안에 끝내고 준공식을 성대하게 진행한 사실 하나만을 놓고보자.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미제의 침략책동이 날로 무모해지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를 악랄하게 실시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유작작하게 려명거리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우리는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다시한번 승리의 기적을 안아왔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존엄이고 긍지인 려명거리를 세상에 대고 높이 자랑한다. 이것은 수백발의 핵폭탄을 퍼뜨린것보다 더 위력한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무엇이든 결심하면 반드시 해내고야만다는데 대해 다시한번 절감하였다. 려명거리건설이 단순한 거리건설이 아니라 감히 《함수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수많은 무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압살하려는 원쑤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나라의 강대성과 무진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사수전,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것을 자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기에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그토록 짧은 기간에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원쑤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천만군민의 철의 의지가 힘있게 과시되였다.

이제 우리가 또 무엇을 결심하고 질풍노도처럼 내달려 기적을 창조해내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알수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것은 불패의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 자력자강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며 그 힘을 가로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이다.

조 택 범

ㄱ-71066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송달료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